

2018년도 제주학회 창립 40주년 기념 학술대회

濟州考古學의 研究 成果와 課題



강창환 (Ph.D. 제주고고학연구소장)

kang, chang-hwa
director of Jeju Archaeological Institute



1

• I. 머리말

- 30년전 제주도 고고학은 너무나 미흡(전산지향 출토 중국 화폐물, 한천·외도천변의 20여기의 고인돌, 오리동 수습 돌문토기, 괘지패총 간략조사, 빌레뫼동굴 수습 구석기 자료 등)
- 일부 향토사학자들은 '무문후옥토기', '금석병용기(金石併用期)' 라는 용어를 서슴지 않고 사용.
- 1983년 제주대학교 사학과에 이창규교수가 부임, 고고학도 배출
- 제주도 고고학의 기틀을 마련하는 일련의 발굴조사(괘지패총, 용담동고분, 북촌리바위그늘유적, 용담동제사유적, 중달리패총 등) 진행 → 이창규교수 『濟州島 考古學 研究』 (이창규, 1995) 집필
- 1996년 이후 제주고산리유적(사적412호), 제주삼양동유적(사적416호) 등 학술적으로 중차대한 유적에 대한 발굴조사가 진행
- 이를 발굴을 통해 이창규교수가 다루지 못한 제주고고학의 시기적 공백을 거의 채워 넣음
- 2000년대 제주삼환백지개발지구 발굴조사 등 대단위 발굴조사 진행.
- 2010년에 이르러서는 제주고고학연구소와 '제주문화유산연구원' 두 축(고고학자 20여명) : 고고학발굴조사와 연구 활동 진행

財團法人
濟州考古學研究所
Jeju Archaeological Institute

(재) 제주고고학연구소
6325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광로 23길 1(일도이동) 2,3,4층
Tel. 064-711-9996 Fax. 064-712-9984
E-mail. jjgogohak@hanmail.net



재단법인 | 제주문화유산연구원
Jeju Cultural Heritage Institute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정실2길 3
Tel : 064_712_8362-3 Fax : 064_712_8361
http://tamnagogo.kr
http://jeju8362.webhard.co.kr (ID : jeju8363, PW : 1234)

690-162

2

II, 제주 고고학의 발굴 기록 : 제주고고학 100년, 濟州考古學史

1. 1910~1945년 이전 :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의 유적조사 보고 (1期)

- ① 1914년 서귀포시 미원동 가래천변에 위치한 왕자묘(일제조사대장에는 장군총)조사
- ② 1923년 日人에 의해 삼양동유적 지표조사 보고(왕자묘 조사와 함께 국립중앙박물관 유리원판 도록에 기재)
- ③ 1928년 산지향 죽항공사시 日人學者들이 파고린 동굴내부에서 중국 靑銅遺物과 화폐유를 발견 : 1947년 보고(梅源末治 . 藤田亮策, 1947, 『朝鮮古文化總攬』 1, 養徳社.)



3

• 2. 1945~1983년의 제주도 고고학(2期)

- 제주도 발굴사 2기(1945~ 1983년)에는 제주도의 향토사가와 한국본토의 역사학자 및 고고학자들에 의해 단편적인 학술조사와 표본조사가 있었던 기간으로 제주고고학이 기본적인 틀을 잡지 못한 단계이다.

- ① 1959년 제주종합학술조사단(김철준교수 등)이 제주시 한천변과 광령, 외도 고인돌 28기 조사
- ② 1967년 최몽룡교수(당시 서울대 4년)가 각지리 지석묘 4기 조사
- ③ 1967년 임호재 . Richard Pearson이 제주도 전역에 대해 간략 지표조사, 신석기유적 보고
- ④ 1973년 송석범 . 江坂輝一이 각지폐총 조사 보고
- ⑤ 1973년 정영화교수(영남대)가 애월읍 '빌레못' 구석기 동굴유적 조사
- ⑥ 1975년 문기선교수(제주대)가 북촌리 바위그늘집자리 수습 유물 보고
- ⑦ 1977년 정영화교수가 천지연유적과 협재리 동굴유적,일령리 한들굴유적 조사 보고
- ⑧ 1979년 이백규교수(당시 제주대)가 각지폐총 1,2지구 학술조사
- ⑨ 1982년 김홍석교수(명지대)가 제1차 범환사지 발굴조사

4

• **3. 1984~1995 제주도 고고학(3期)**

• 제주도 발굴사 3기에 이루어진 모든 발굴은 거의 대부분 제주대학교박물관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를 연도별로 구분하여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 1) 제주대학교박물관의 발굴조사

- O1 제주 괏지패총(학술발굴): 패총, 1984.08.11~1984.11.18(2차), 청동기, 탐라전기
- O2 제주시 용담동고분(구제발굴): 분묘, 1984.12.26~1985.01.19, 조기철기, 탐라전기
- O3- 제주 북촌리유적(학술발굴): 주거지, 패총, 1986.05.27~1986.08.21, 청동기
- O4 제주 상모리유적(학술발굴): 패총, 생활/988.06.12~1988.08.21, 청동기
- O5 제주 중달리패총(구제발굴): 패총, 1991.09.09~1991.09.20, 조기철기~원삼국
- O6 제주 법환사추정연지유적(학술발굴): 사지, 1990.12.11~1991.01.21, 고려
- O7 제주 법환사지(학술발굴): 사지, 1991.12.31~1992.11.30, 고려
- O8 제주 괏지패총(구제발굴): 패총, 1985.10.01~1985.10.20(2차), 1989.09.04~1984.09.13(3차), 1989.09.15, 1989.09.22(4차), 1992.11.04~1992.12.08(5차), 청동기~통일신라
- O9 제주시 용담동 제사유적(학술발굴): 제사, 1992.04.16~05.23, 탐라후기
- O10 제주목관아지(구제발굴): 관아지, 1991.09.01~1991.12.31, 1992.05.27~1992.12.31, 조선
- O11 제주 정의현객사지(학술발굴): 관아지, 1993.12.01~1994.02.25, 조선/- 서귀포시 상례동유적(구제발굴): 생활, 1994.10.02~1994.10.20, 탐라전기~후기
- O12 제주 존자암지(학술발굴): 사지, 1993.03.16~1993.10.31(1차), 1994.07.16~1994.10.31(2차), 고려말~조선
- O13 제주목관아지(구제발굴): 관아지, 1996.07.15~1996.11.27, 조선
- O14 탐라성주고분례묘주정묘(학술발굴): 분묘, 1996.12.05~1996.12.29, 조선
- O15 제주 법환사지(학술발굴): 사지, 1995.05.22~1995.12.08, 고려, 1997.02.24~1997.08.30, 고려~조선
- O16 제주 고산리유적(구제발굴): 생활, 1994.06~1994.08(1차), 1997.06.19~1997.12.30(2차), 신석기

• 2)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의 발굴조사

- O1 제주 감녕리 왜내기둥굴유적(학술발굴): 둥굴주거, 1991.08.30~1991.09.16, 1992.09.28~1992.10.18, 1993.08.16~1993.09.15, 탐라조기

• **4. 1996~2000 제주도 고고학(4期)**

• 제주도 발굴사 4기에 이루어진 발굴도 거의 대부분 제주대학교박물관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제주대학교박물관의 발굴조사

- O1 제주 국도12호선 확장공사구간내 고내리, 괏지리, 금성리, 귀덕리 유적(구제발굴): 생활, 1995.08~1996.02.
- O2 제주목관아(학술발굴): 관아지, 1997.10.29~1998.07.20, 조선
- O3 제주 하원동탐라왕자묘(학술발굴): 분묘, 1998.12.04~1999.04.25, 조선,
- O4 제주 수정사지(구제발굴): 사지, 1998.06.29~1998.10.26, 2000.02.14~2000.06.12, 고려
- O5 제주 삼양동유적(구제발굴): 주거지, 1997.04.24~10.30, 1997.12.10~1998.10.05, 1998.11.18~1999.07.08
- O6 제주 월성로유적(구제발굴): 주거지, 1999.11.23~12.31, 조기철기
- O7 제주 고산리유적(학술발굴): 생활, 1999.11.24~2000.02.24, 신석기
- O8 제주 토평동 방형석곽묘(구제발굴): 분묘, 1999.11.27~2000.02.27, 조선
- O9 제주 괏지리·금성리유적(구제발굴): 생활, 1995.12~1996.04, 탐라전·후기
- O10 제주 중달리 2, 3지구(구제발굴): 패총, 2000.07.27~2000.10.23, 탐라후기
- O11 제주 고내리유적(구제발굴): 생산, 1994.11.25~1995.01.19, 1995.04.11~06.10, 통일신라

• 2)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의 발굴조사

- O1 제주 금성리유적(학술발굴): 생활, 패총, 1997.12.27~1998.05.06, 통일신라(탐라후기), 제주대학교 박물관과 제주 사정립사업추진협의회 공동 발굴조사.

• 5. 2001~2005 제주도 고고학(5期)

- 제주도 발굴사 5기에 이루어진 발굴조사는 새로 설립된 문화재발굴조사 전문기관인 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재연구소에 의해 거의 대부분 이루어졌다. 또 국립제주박물관에서도 부분적으로 학술발굴을 진행한 바 있다. 이러한 발굴기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재연구소의 발굴조사
 - 01 제주 성읍 정인현내아지(학술발굴): 관아지, 2001.11.05~2001.12.19, 조선 /02 제주 외도동유적(구제발굴): 주거지, 2001.11.15~2002.02.22, 2002.07.29~2002.09.23, 원삼국/03 제주 온평리유적(구제발굴): 생활, 2001.10.04~2002.11.02, 신석기/04 제주 신현리 한뫼곶유적(구제발굴): 패총, 2001.12.04~2002.01.21, 신석기~고려 /- 제주 용문로유적(구제발굴): 주거지, 2002.08.20~2002.09.18, 초기철기/04 제주 오라동 도로개설구간 지석묘(구제발굴): 분묘, 2011. 01.19~2001.01.24, 초기철기[탐라조기] /06 제주 광명, 용포리지석묘(구제발굴): 분묘, 2002.12.2~2002.12.26, 탐라조기/07 제주 수산리 발리리왕유적(구제발굴): 생활, 2003.08.18~2003.10.16, 신석기~삼국[탐라전기]/06 제주 고내리유적(구제발굴): 생활, 2004.07.06~2004.07.17, 탐라후기/08 제주시 삼양동 인부전시관 부지유적(학술발굴): 주거지, 생활, 2003.04.09~2003.12.05, 탐라조기/08 제주국제공항착륙대부지유적(구제발굴): 주거지, 분묘, 2003.04.30~2003.09.26, 신석기~조선/09 제주 용담2동 먹물로유적(구제발굴): 주거지, 2003.11.01~2003.12.30, 초기철기[탐라조기]/10 제주 원당사지(학술발굴): 사지, 2004.09.22~2005.02.24, 고려~조선 /11 제주 이라동 구산마을유적(구제발굴): 생활, 2002.10.28~2003.01.17, 초기철기~탐라조기/10 제주 동명리유적(구제발굴): 생활, 2004.07.05~2005.09.17, 청동기~초기철기[탐라조기]/11 제주목관아지(구제발굴): 생활, 2004.05.27~2004.08.28, 근대/13 제주목관아 칠성단, 섣덕대유적(학술발굴): 생활, 2004.07.13~2004.08.06, 조선~근대/- 제주 외도동 Ⅱ 유적(구제발굴): 주거지, 2005.02.28~2005.05.31, 원삼국[탐라조기]/- 제주 함순리유적(구제발굴): 주거지, 2005.04.27~2006.12.15, 청동기~원삼국/12 제주 하모리유적(구제발굴): 패총, 주거지, 2005.10.17~2006.02.13, 신석기~청동기후기/13 제주시 제일주자빌딩주차장유적(구제발굴): 생활/2005.10.21~2005.11.19, 탐라후기~조선/14 제주 성읍리 문화마을 유적(구제발굴): 생활, 2005.01.03~2005.04.02, 신석기
- 2) 국립제주박물관의 발굴조사
 - 01 제주 귀덕리유적(구제발굴): 분묘, 2001.10.11~2001.10.13, 조선/ 02 제주 중달리유적(학술발굴): 패총, 2001.11.27~2002.02.02, 초기철기~탐라후기

• 5. 2006~2008 제주도 고고학(6~1期)

- 제주도 발굴사 6기는 대략 2분기로 나누어진다. 우선 6-1분기(2006~2008)에 이루어진 발굴은 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재연구소가 발굴조사 기능을 상실한 후 육지부 발굴기관인 호남문화재연구원, 중앙문화재연구원, 마한문화재연구원 등이 제주도 발굴을 주도하게 된다. 또 부분적이지만 국립제주박물관, 제주대학교박물관 등에 의해 발굴이 진행됐다.
- 1) 호남문화재연구원의 발굴조사
 - 01 제주 삼화지구 동쪽도로구내유적(구제발굴): 분묘, 생활, 2006.07.26~2006.08.16, 초기철기, 조선/02 제주 안림지구 주택건설 부지유적(구제발굴): 생활, 2006.08.17~2006.10.28, 고려/- 제주 이귀리유적(구제발굴): 주거지, 2006.10.12~2007.06.10, 청동기~원삼국/- 제주 대정성지 애자유적(학술발굴): 성곽, 2006.10.30~2006.11.06, 조선/03 제주 동부관광도로 표선-성읍간 도로구내 유적(구제발굴): 생활, 2007.01.15~2007.02.28, 신석기/-04 제주 삼환택지개발지구 '단지역' 유적(구제발굴): 생활, 2007.02.01~2007.04.01, 초기철기~근대/05 제주 삼환택지개발지구 '나지역' 유적(구제발굴): 주거지, 2007.03.12~2008.01.05, 청동기~초기철기
- 2) 마한문화연구원(전 남도문화연구원)
 - 01 제주 한남리유적(구제발굴): 생활, 2007.05.28~2007.08.20, 신석기/02 제주 광지리 농수산집안장 및 저온저장시설 신축부지내 발굴조사(구제발굴): 주거지, 생활, 2007.05.04~2007.10. 05, 탐라조기~전기/03 제주 추사전시관 권립부지내유적(학술발굴): 주거지, 2007.07.30~2007. 08.10, 조선후기~근대
- 3) 중앙문화재연구원
 - 01 제주 성읍리농촌융복합개발사업부지내유적(구제발굴): 생활, 2006.10.30~2007.03.08, 신석기, 고려/ 02 제주 동흥6지구 유적(구제발굴): 생활, 2007.02.12~2007.02.24, 조선후기
- 4) 제주박물관의 발굴조사
 - 01 제주세무서직원사택유적(구제발굴): 주거지, 2006.05.01~2007.04, 청동기, 고려/02 제주 삼양2동 2132-1번지유적(구제발굴): 주거지, 2006.07.18~2006.08.18, 초기철기/03 제주 동명리 서부소방서부지 유적(구제발굴): 주거지, 분묘, 2007.02.15~2007.02.26, 초기철기
 - / 03 제주 삼환택지개발지구 '가-1구역' 유적(구제발굴): 생활, 분묘, 2007.09.27~2008.05.31, 청동기~조선
- 5) 국립제주대학교박물관의 발굴조사
 - 01 남제주 농어촌도로구내유적(구제발굴): 생활, 2006.02~2006.05, 신석기/ 02 제주시 상모리 1-7번지유적(구제발굴): 생활, 005.12.25~2006.01, 신석기~청동기/03 제주시 용담2동 694-4번지유적(구제발굴): 생활, 2008. 02~2008.06, 초기철기

• 5. 2009~2018년 현재 제주도 고고학(6-2期)

- 제주도 고고학사 6-2분기(2009~현재)에 이루어진 발굴은 육지부 발굴 전문기관이 물러나고 새롭게 창립된 제주문화유산연구원(2008), 제주고고학연구소(2010)가 제주도 발굴을 주도하게 된다. 또 부분적으로는 국립제주박물관, 불교문화재연구소, 한일문화재연구원, 중앙문화재연구원 등에 의해 발굴이 진행됐다.
- 출간된 보고서의 목차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제주문화유산연구원(2008년 창립) 보고서 목록

- O1 제주 이호유원지 조성사업부지내 문화재 시굴조사 보고서/O2 제주 한림리 유적(제주 한림리 839-2번지 주유소 신축부지내 유적 문화재 발굴조사 보고서)/O3 제주 용담동 디오마을 유적 I (제주국제공항 시설확장부지내(2지역)유적 문화재 발굴조사 보고서)/O4 제주 삼양동 1249-7번지 유적(제주 삼양동 1249-7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내 유적 문화재 발굴조사 보고서)/O5 濟州 日讓里遺蹟 (안덕~대정간 도로 확장 및 표정공사 구간내 문화재 발굴조사 보고서)/O6 제주 삼양지구 가-Ⅱ 구역 유적(제주 삼양지구 가-Ⅱ(가)구역내 유적 문화재 발굴조사 보고서)/O7 제주 강정동 유적 (서귀포 체육시설(축구장) 조성부지내 문화재 발굴조사 보고서)/O8 제주 추사전시관 유적 (제주 추사 유물전시관 건립부지내 유적 제주 추사전시관 유적)/O9 濟州 沙溪里 遺蹟(사계~인성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구간(3구역)내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O 濟州三陽洞遺蹟 (- ⅴ地區(1665-1番地)- 제주 삼양동산사유적지 관리사무고 건축부지내 문화재 발굴조사 보고서)/O 旌義縣 官衙址 (제주 성읍민속마을 관아 2차 문화재 발굴조사 보고서)/O 濟州三陽洞遺蹟(-2136-9番地- 제주 삼양동 주민센터 신축부지내 유적 문화재 발굴조사 보고서)/O 濟州梨湖洞遺蹟(-288番地- 제주국제공항 동화평면지역내 유적 문화재 발굴조사 보고서)/O 濟州 金寧里 遺蹟(2410번지, 제주김녕(중로3-3호선)도시계획도로확포장공사구간문화재발굴조사보고서)/O 濟州 都斗洞 遺蹟(2162-2번지, 제주국제공항 남측토취장 부지내 유적 문화재 발굴조사 보고서)/O 濟州 都斗洞 遺蹟(614-1번지, 도시우회도로(도란사거리~삼양공문소) 확장사업부지내 유적 문화재 발굴조사 보고서)/O 濟州 都斗洞 遺蹟(105번지, 제주시 지방이전 수해복구 예정구역내 문화재 발굴조사 보고서)/O 濟州 都斗洞 遺蹟(1874-16번지, 제주 신장-대정간 도로건설공사구간내 문화재 발굴조사 보고서)/O 濟州 都斗洞 遺蹟(19번지, 제주 서귀포시 (도지정기념물 제55호 서귀포시 유적 1차·2차 문화재 발굴조사 보고서)/O 濟州 都斗洞 遺蹟(1035-2번지, 도란-동원전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구간내 문화재 발굴조사 보고서)/부록, 제주 양파두리 향몽유적지 문화재 시굴조사 보고서)/O 濟州 都斗洞 遺蹟(변영로(성읍-대정간) 확포장공사 구간내 문화재 발굴조사 보고서)/O 濟州 都斗洞 遺蹟(1882-1번지, 제주 판포지구 배수개선사업부지내 문화재 발굴조사 보고서, 부록, 제주 리온랜드 비야드 관광케이블카 개발사업 부지내 문화재 발굴조사 보고서)/O 濟州 都斗洞 遺蹟(예래동유적 (예래유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 부지내 문화재 발굴조사 보고서)/O 濟州 都斗洞 遺蹟(1-8번지)/O 濟州 都斗洞 遺蹟(제주 민국복합형 관광미항 건립부지내 문화재 발굴조사 보고서)/O 濟州 都斗洞 遺蹟(백용지구 농업용저수지 특별이기 사업지구내 문화재 발굴조사 보고서)/O 濟州 都斗洞 遺蹟(도지정기념물 제55호 서귀포시 유적(3차) 문화재 발굴조사 보고서)/O 濟州 都斗洞 遺蹟(2621-10번지, 제주시 용담2동 2621-10번지 건물신축부지내 문화재 발굴조사 보고서)/부록, 제주시 삼도이동 1024번지 주차장 조성공사 부지내 문화재 발굴조사 보고서)/O 濟州 都斗洞 遺蹟(국가사적 제412호 제주 고산리 유적 문화재 발굴조사 보고서)/O 濟州 都斗洞 遺蹟(1412번지)제주시 삼양동(1412인) 창고신축부지내 유적 문화재 발굴조사 보고서)

• 5. 2009~2018년 현재 제주도 고고학(6-2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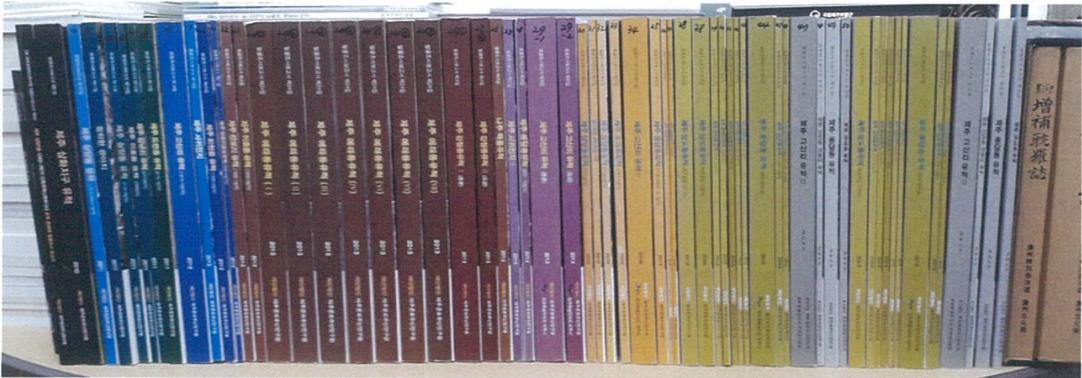
• 1. 제주문화유산연구원(2008년 창립) 보고서 목록

- 31 정인현 관아지(3차) (제주 성읍민속마을 관아(일관현)부지 문화재 발굴조사 보고서)/O 濟州 都斗洞 遺蹟(2139-5번지, 제주시 삼양2동 삼양교회 중축부지내 유적 문화재 발굴조사 보고서)/O 濟州 都斗洞 遺蹟(2401-5번지)제주시 오라3동 금남여객 차고지 부지내 유적 문화재 발굴조사 보고서)/O 濟州 都斗洞 遺蹟(국가사적 제412호 제주 고산리 유적 문화재 발굴조사 보고서)/ O 濟州 都斗洞 遺蹟(2708-29번지(외필지)/(제주시 용담2동 2708-29번지 외필지 창고시설 신축부지내 문화재 발굴조사 보고서)/
- 36 제주 색달동 유적(2950번지)(제주 서귀포시 색달동 관광단지 조성부지내 유적 문화재 발굴조사 보고서)/O 濟州 都斗洞 遺蹟(2139-16번지, 제주시 삼양2동 2139-16번지 건물신축부지내 문화재 발굴조사 보고서)/O 濟州 都斗洞 遺蹟(북조동길 22번지, 제주북조 동북적강당 중축부지내 문화재 발굴조사 보고서)/O 濟州 都斗洞 遺蹟(2181-36번지, 제주시 삼양2동 2181-36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내 문화재 발굴조사 보고서)/O 濟州 都斗洞 遺蹟(4982번지, 제주 중달리 천수동 농로포장공사부지내 유적 문화재 발굴조사 보고서)/O 濟州 都斗洞 遺蹟(173-1번지, 제주 장애인스포츠센터 건립부지내 문화재 발굴조사 보고서)/O 濟州 都斗洞 遺蹟(성읍정인현로 57번지, 제주성읍민속마을 관아부지내 유적 문화재 발굴조사 보고서)/O 濟州 都斗洞 遺蹟(2140-1번지, 제주시 삼양2동 2140-1번지 삼양리은모래호스텔 신축부지내 유적 문화재 발굴조사 보고서)/O 濟州 都斗洞 遺蹟(2697번지 외, 제주 용담동 유적(국가사적제522호) 문화재 발굴조사 보고서)/O 濟州 都斗洞 遺蹟(1306-13번, 제주시 일도1동 복지위관 신축사업부지내 문화재 발굴조사 보고서)/O 濟州 都斗洞 遺蹟(성읍리유적(성읍리796-1, 807, 571번지, 서귀포시 중민 제188호 성읍민속마을 내 내야지 유적 문화재 발굴조사 보고서)/O 濟州 都斗洞 遺蹟(III (국가사적 제412호 제주 고산리 유적 문화재 발굴조사 보고서)/O 濟州 都斗洞 遺蹟(대궐터 유적(4263번지) (제주 강정동 대궐터 유적 문화재 발굴조사 보고서)/O 濟州 都斗洞 遺蹟(제주시 용담2동 2718-1번지 외필지 다세대주택 신축부지내 문화재 발굴조사 보고서)

• 5. 2009~2018년 현재 제주도 고고학(6-2期)

• 1. 제주문화연구원(2008년 창립) 보고서 목록

- 50 제주 일도동유적(제주 관덕로 71길 차 없는 거리 조상시업부지내 유적 문화재 발굴조사 보고서)/51 제주 일도동유적(181-1번지 일원, 제주 인도 제2축구상 조상시업부지내 유적 문화재 발굴조사 보고서)/52 제주 용담동유적(제주시 용담2동 2695-4번지 건물 신축부지내 문화재 발굴조사 보고서)/53 제주 삼양동 유적(제주시 삼양이동 2177-10번지 건물 신축부지내 유적 문화재 발굴조사 보고서)/54 제주 삼양동 유적(제주시 삼양2동 2135-2번지 건물 신축부지내 유적 문화재 발굴조사 보고서)/55 제주 성올리 유적(804, 808, 809-1번지, 서귀포시 표선면 성올리 상올민속마을 관아터유적 문화재 발굴조사 보고서)/56 제주 장천리 유적(서귀포시 안덕면 장천리 705-1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내 유적 문화재 발굴조사 보고서)/57 제주 삼양동 유적(제주시 삼양2동 2176-12번지 제2근린생활 및 단독주택 신축부지내 유적 문화재 발굴조사 보고서)/58 제주 일도동 유적(제주시 일도일동 1226번지 일원 탐리문안장상 조상시업부지내 정밀발굴조사 보고서)/59 제주 고산리 유적 IV(국기사적 제412호 제주 고산리 유적 문화재 발굴조사 보고서)/60 제주 용담동 유적(제주시 용담2동 2622-1번지 건물 신축부지내 정밀발굴조사 보고서)/61 제주 일도동 유적(제주시 인도1동 125-2번지 정교 신축부지내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보고서)



11

• 5. 2009~2018년 현재 제주도 고고학(6-2期)

• 2. 제주고고학연구소(2010년 창립) 보고서 목록

- 01 제주 고성리 유적/02 제주 어울2리 무명동굴/03 제주 삼양초등학교 유적/04 서귀포 상항리 분묘/05 제주 일도동 유적 III/06 제주 동방리 유적 III/07 제주 용담동 유적/08 제주 향파두리 향동 유적 문화재 시굴조사 (2차) 보고서/09 제주 조천우회도로(신촌~함덕) 유적/10 제주 금성리 분묘/11 제주 함손리 창고선유적/12 제주 곽지리 곡급초등학교살리 기 다세대주택 건립부지내 시굴조사 보고서/13 제주 향파두리성 外城 I (1-4차 종합보고)/14 제주 함손리 도시계획도로 유적/15 서귀포 상모리 유적/16 제주 용모천 유적/17 서귀포 상모리 유적 II/18 제주성지 동지성/19 제주 금성리 분묘 II/20 제주 관녕실중단지 유적/21 제주 용담동 공항로길 유적/22 제주 도련동 유적(제주 흥익영아원 B동 신축부지 내 문화재 발굴조사 보고서)/23 제주목 관아 영주관 객사터 1차, 2차 발굴조사 보고서/24 제주 고산리유적 I (2구역)/25 제주 시 용담2동 727-6번지 유적/26 제주 오동동 유적II (제주시 안천 제2저류지 확장공사부지 내 발굴조사 보고서)/27 제주 시일도1동 1276-7번지 유적/28 서귀포시 성산을 시흥리 1번지 유적(서귀포시 성산을 시흥리 1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내 문화재 발굴조사 보고서)/29 제주 이도동 유적(제주시 이도1동 1787-3번지 인 2필지 숙박시설부지내 문화재 발굴조사 보고서)/30 朝天鎮城(제주 연북성 및 조천진성 발굴조사 보고서)/31 제주 사계-인성 유적(제주 사계~인성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구간내 문화재 발굴조사 보고서)/32 고산리 유적(2차)/33 향파두리 향동유적 외성 2/34 향파두리 향동유적 내성 1(1-4차 발굴보고)/35 서귀포시 토평동 유적 I -김진환



12

Ⅲ. 제주도 고고학의 시기편년

- 제주도의 상고시대 편년은 이청규교수의 <제주도 고고학연구>에서 출발한다. 이청규 교수는 1995년 이전에 발굴된 제주도 고고학 자료를 바탕으로 나름대로의 시기 구분을 시도했다.

<표 1> 상고시대 제주도 문화변천 과정(이청규, 1995).

시기구분		정치사회적 변천		토기문화	
시기	년대	대내적 상황	대외관계	적갈색토기	灰色陶器
탐라이전	500~0 B.C.	소규모사회	남한유입	상모리식토기	
탐리전기	0~300 AD 300~500 AD	위계화 초기사회	미안교역	곽지리식토기 (곽지리식토기)	원삼국도기 미안도기(?)
탐리후기	500~660 AD 660~900 AD	국주 지배인 위계화사회	백제조공 신라조공	곽지리식토기 (고내리식토기)	백제도기(?) 통일신라도기



13



청동기~탐리조기[형상기]~탐리후기[탐리국]으로 이어지는 탐리[제주] 토기의 변화와 흐름(강창환 2016)

Late Tamra

14

- 1995년 이후 발굴조사가 급증하였고 이에 따른 고고학자료의 증가로 인해 새로운 가도의 편년안이 모색되었다. 발표지는 제주도의 고고학적 유적과 유물의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이 제주도 상고시대의 시기구분과 정치·사회적 변천상을 제시한바 있다(표 2 참조).

〈표 2〉 상고시대 제주도 시기구분과 문화변천(강창화 2003,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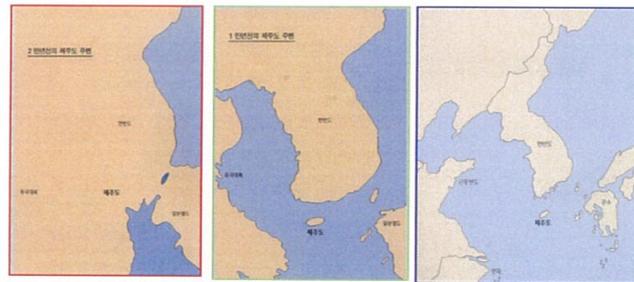
시기구분		정치·사회적 변천		토기문화	
시대	소속연대	내부	외부	재지산	외지산
구석기시대	65,000(·)~35,000	펼거이동 사회	연륙	빌레못洞窟 石器	
	25,000(·)~15,000			천지연洞窟 石器	
신석기시대	B.C.9,000~6,000	수렵채집 사회	연륙이동	고산리식토기	
	B.C.6,000~3,000				용기문토기
	B.C.3,000~1,000			북촌리식토기	이중구연토기
무문토기시대 (靑銅器時代)	B.C.800~B.C.200	정착사회 (소규모사회)	남한유입	상모리식토기	궁별토기
람라시대 초기 [初期(形成期)]	B.C.200~A.D.200	취락사회		삼양동식토기	점토대토기 미한계토기
람라시대 전기	A.D.200~500	위계화 초기사회	미한교역	곽지리식토기	백제계토기
람라시대 후기 [耽羅國時代]	A.D.500~660	국주 지배사회	백제조공	고내리식토기	통일신라토기
	A.D.660~936		신라조공		당도자기
	A.D.936~1105	성주 체제사회	구당사 파견		고려도기 송도자기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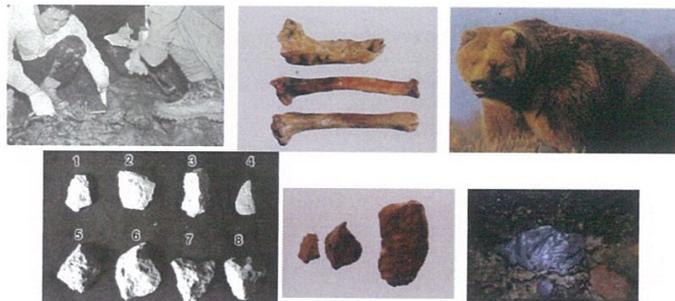
IV. 제주도 고고학 발굴조사와 그 성과

1. 구석기시대(舊石器時代, B.C.65,000 ~ 12,000)

- 구석기시대 중기 단계의 굽개류와 대륙성 동물인 황곰뼈가 출토된 제주 어음리 '빌레못' 동굴유적은 ① 석기의 부정형성(不定形性), ② 층위의 불명확성, ③ 동물뼈 분류(학명) 등 이견(異見) 등이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어 구체적으로 다각적인 방면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강창화 2014).



만 2000년전/1만년전/현재의 제주도 : 환경의 변화에 따른 지리적 위치



16

-2010년 국립제주박물관이 서귀포시 생수굴 '바위그늘유적'에서 돌날몸통(石核), 돌날(石刃), 좁돌날몸통(細石核), 좁돌날(細石刃), 잔손질 석기류[꺾개, 밀개, 훑날, 툄니날] 등을 발굴함. 보고서에서는 동굴단계면 토양 샘플을 통한 OSL 측정결과 유적의 형성시기는 27,000 BP, 유적의 주 점유시기는 17,000~10,000 BP로 설정하고 있음. 특히 유적의 형성시기는 최후 빙하기의 해수면 하강시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다만 보고서 말미에 지적했듯이 내부 퇴적토의 성인연대, 구성물질의 지질학적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과 차후 문화층의 절대연대, 석기의 정형성, 중위해석의 문제 등을 명확하게 해결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음.
- 최근 이루어진 구석기시대의 연구 성과는 없다. 다만 2015년 10월 24일 한국구석기학회 주관으로 '제주도의 구석기연구 현황과 과제' 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 한 바 있다. 이 학술대회에 서귀포시 히는분환구내 퇴적층연대 34,000년전 이후 플라이스토세 후기에서 홀로세 환경에서의 제주구석기유적의 존재가능성을 시사한 점이 주목된다. 더불어 최근 1973년 7월 말에 발굴조사를 진행했던 빌레뫼트굴 내부 구석기유적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 중에 있다.



좁돌날(細石刃)

압날삼각점렬문토기
(押捺三角點列文土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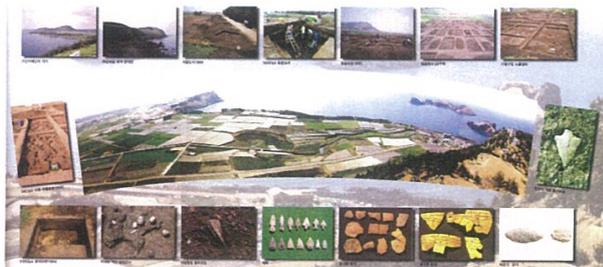
2. 신석기시대(BC.10,000 ~ 1,000)

지금까지 제주도에서 지표조사와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유적의 수는 70여 개소에 이른다. 제주도 본섬을 포함한 부속도서에 이르기까지 제주도 전역에서 확인되는 추세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중산간지역과 해안저지대를 중심으로 조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2000년 이전, 제주도에 신석기유적에 대한 조사는 단편적인 지표조사와 북촌리암울유적(제주대학교 박물관1986), 고산리유적(제주대학교박물관 1994, 1996, 1998)의 발굴조사가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이에 반해 2000년 이후, 발굴조사된 유적은 온평리유적(제주문화예술회관 2001), 신천리 '한뫼굴' 동굴유적(제주 문화예술회관 2001), 삼양동 유원지개발사업부지내유적(제주문화예술회관 2004), 성읍리 문암마을조성부지내유적(제주문화예술회관 2004, 2005), 함모리유적(제주문화예술회관 2005), 인도동 인도온동장조성부지내유적(제주문화예술회관 2005), 제주국제공항특대확장공사부지내 용담동(어영)·도두동유적(제주문화예술회관 2005, 제주문화유산연구원 2008, 2009), 성읍리 농촌유수개발사업부지내유적(중앙문화재단연구원 2007), 강정동 서귀포체육시설조성부지내유적(제주문화유산연구원 2008), 시계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구간3구역(단산)내유적(제주문화유산연구원2008), 삼양동 삼환택지개발지구내유적(중앙문화재단연구원 2009), 오리동 병문천저류지유적(제주문화유산연구원 2009), 오리동 한천저류지유적(제주문화유산연구원 2009), 삼양동 삼양초등학교개축부지내유적(제주고고학연구소 2010), 도련동유적(제주문화유산연구원 2012), 한동리유적(제주고고학연구소 2013), 김녕리 풍력발전실증단지 동굴유적(제주고고학연구소 2013) 등 20여 개소에 이른다. 특히 사적 412호 고산리유적은 2012~2016년까지 중 5회에 걸쳐 제주문화유산연구원과 제주고고학연구소 2개 기관이 연차적인 학술발굴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제주도 신석기유적 분포도(강창원, 김중찬,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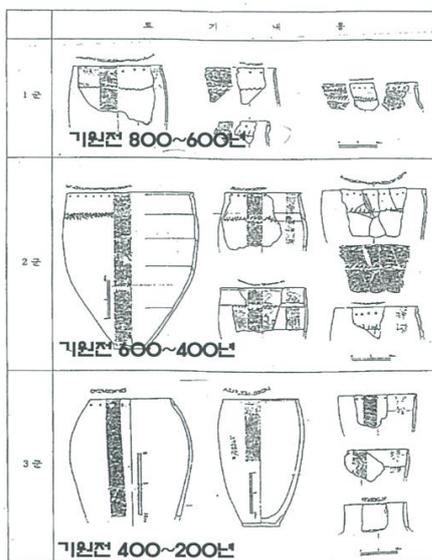
고산리 초기신석기유적(12,000~8,000년 전)

3. 청동기시대(靑銅器時代, B.C. 1,000 ~ 300) 유적의 발굴조사 성과

1995년 이전 제주도 청동기를 대표하는 유적은 상모리유적(1988)과 용담동고분 남쪽묘역(1984), 이며 일부 중위적으로 확인된 북촌리바위그늘유적 2층과 곡지패총 2지구 뿐이었다. 하지만 1995년 이후 용담동 월성로유적(1999), 삼양동유적(1996~1998), 제주삼합지구내유적(2007, 2008), 제주세무서부지유적(2007), 김녕리패총(2001), 동명리유적(2004, 2008, 2011), 고산리유적(2007), 삼양동주민자치센터부지(2010)유적, 삼양2동 2132-1번지유적(2011), 삼양초등학교개축부지내유적(2011) 등이 발굴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유물상의 변천에 중점을 두었던 기존 연구들에서 벗어나 제주도 청동기문화의 전개 양상을 파악하는 연구 성과들이 어느 정도 도출되었다.

	B.C. 1000	900	800	700	600	500	400	300	200
이청규 (2009)			1기			2기			3기
강창환 (2013)			1기		2기		3기		
고재원 (2009)		1단계			2단계			3단계	
김경주 (2009, 2011)	혼암리계토기 상한		역삼동계 취락 중심연대				송곡리문화 유입		
박경민 (2012)	I 기			II 기		III 기			

21



상모리토기군의 변화(이청규 1995)



제주도 청동기시대 유적 분포도와 편년



22

- 그동안 제주도 청동기시대 유적의 발굴성과를 바탕으로 혼암리식 복합문토기, 역삼동식 구순각목계 토기, 송국리식 외반구연토기로 이어지는 시대구분과 문화변전을 제시한 바 있다(표 4 참조).

〈표 4〉 무문토기시대[靑銅器時代] 시기구분과 문화변전(강창완, 2011)

시대편년	연대	사회변천	제주도 (在地産)	남해안일대 (外地山)	유적·유구·층서
청동기 시대 [無文土 器 時代]	1기	B.C.800 ~600	상모리 1기 (유입기)	복합문토기(각목+궁별+단사선, 이중구연), 삼발형토기	(장)방형계주거지 역삼동계 주거지 축조(?) 상모리 A지구 이층(조입문화층), 감녕리패총 유물조입 1기
	2기	B.C.600 ~400	상모리 2기 (성행기)	단순문토기(각목문, 궁별문, 단 사선문), 호형토기	(장)방형계주거지 역삼동계 주거지 축조 상모리 A지구 중(상)층, 상모리 B·C지구 삼환지구유물조입 1기, 감녕리패총 2기, 대포동 바위그늘유적
	3기	B.C.400 ~200	중·소규모 취락사회 조입시기	상모리 3기 (소멸기)	무문양토기(삼발형) 성행 외반구연(호형)토기 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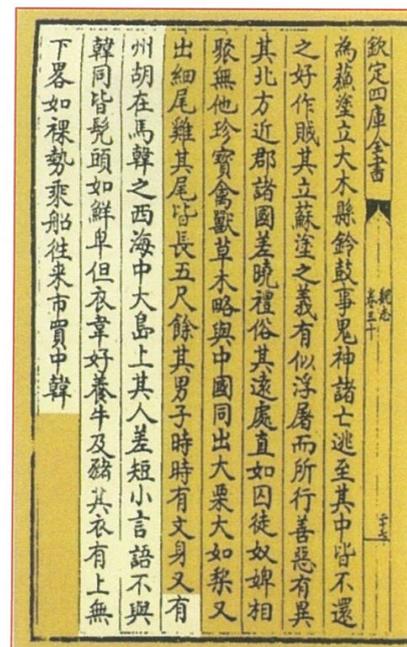


23

4. 탐라시대(耽羅時代, B.C.200 ~ A.D 200)

1) 탐라초기[耽羅形成期, B.C. 200~A.D. 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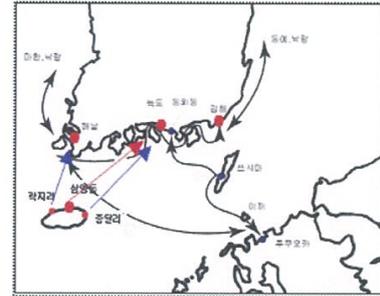
- 이 시기는 중국 서진(西晉)의 역사가인 진수(陳壽, 233 ~ 297)가 280 ~ 289년 사이에 저술·편찬한 중국의 역사서인 『삼국지(三國志)』 위서(魏書) 「동이전(東夷傳)」 한조(韓條)의 끝 부분에 등장하는 '주호(州胡)'의 시기로 요약된다.
- "..... 또 주호(州胡)가 있는데 마한(馬韓)의 서쪽 바다가 온데 큰 섬이다. 그 곳 사람들은 키가 조금 작고, 언어는 한(韓)과 같지 않으며, 모두 머리를 깎아서 선비족과 같다. 그들은 옷을 가죽으로 애 입으며, 또한 소와 돼지를 잘 기른다. 그런데 그 옷차림은 뒷뒷만 있고 아래옷은 입지 않은 것 같아서 마치 벌거벗은[裸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그들은 배를 타고[乘船]와 마한(馬韓)과 왕래하면서 장사[交易]를 한다." (『三國志』魏書, 「東夷傳」韓條, "...又有州胡 在馬韓之西海中大島上 其人差短小 言語不如韓同 皆頭髮如鮮卑 但衣偉 好養牛及猪 其衣有上無下 略如裸勢 乘船往來市買中韓.")
- 이 기록 내용에 언급된 주호(州胡)가 어딜 끼리는 관심은 일찍부터 있어 왔으며, 이병도(李丙燾), 시라토리 구라키치(白鳥庫吉), 리지린(李址麟) 등 여러 학자들이 견해가 있다. 그렇지만 리지린이 주호를 '묘도열도(廟島列島)'로 보는 것을 제외하면, 대체적인 경향은 '마한의 서(남)쪽에 자리한 큰 섬'을 '제주도'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면 이 기록은 역사적으로 주호인들의 모습과 바닷길을 이용해 활발한 교류활동을 했던 사실을 처음으로 언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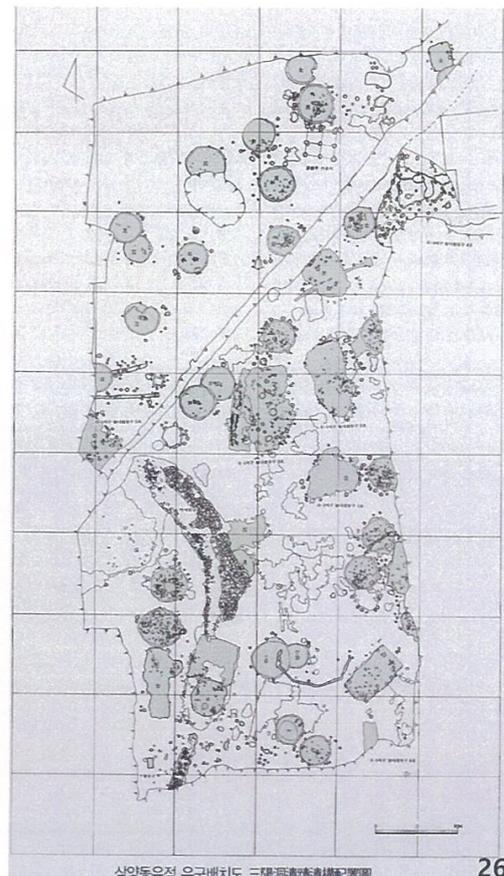
『삼국지(三國志)』 위서(魏書) 「동이전(東夷傳)」 한조(韓條)

24

- 그렇다면 그 옛날 제주도로 짐작되는 주호의 교류 대상이었던 중한은 어디인가. 이 또한 여러 학자의 견해가 있지만 옛 마한지역의 남해안 일대로 보는 것이 대체적인 흐름이다. 게다가 진영일 교수는 3~4세기 영산강일대에 존재했던 신미국(新彌國)을 중심으로 하는 29개 소국(小國)의 연맹체를 지칭하여 중한으로 보고 있다. 즉 240~280년대에 지금의 전라남도 해남지방에 결성된 신미국의 연맹 체제를 중한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이다.
- 전라남도 해남과 여수반도에서 제주도의 그릇이나 현무암 닻돌 등이 출토될 뿐만 아니라 제주도의 유적에서도 해남, 여수반도에서 생산된 그릇과 석기 등이 확인되기도 한다. 이처럼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토기, 석기, 어구(漁具) 등 생활에 필요한 도구들의 상호 교환은 바닷길을 통한 직접적인 교역의 증거인 것이다.
- 이들 제주산(濟州産) 유물이 발견된 옛 중한지역의 유적은 남해안일대에 자리한 전라남도 해남 군곡리(郡谷里)와 경상남도 삼천포 녹도(勒島) 유적인데, 이들은 주거지와 무덤, 그리고 조개무지(貝塚) 등이 동시에 확인되는 대단위 생활공간인 복합유적이다.
- 우선 군곡리유적은 집자리, 토기가마, 패충 등이 발견된 고대 마을유적에 해당된다. 특히, 구릉의 서남쪽(지구) 패충에서 제주산 경질무문토기들이 확인되었다. 게다가 지구 패충의 아래층에서는 황천(黃泉)이 공반 출토되기도 하였다. 반면 녹도는 삼천포와 남해 창선면(昌善面) 사이에 위치하는 작은 섬으로, 이곳 유적에 대한 수차례 발굴을 실시하여 주거지, 패충, 무덤, 토기가마, 각종 수혈 등 삼각형점대토기 단계 유구와 유물들이 집중 분포하고 있었다. 녹도 1호 주거지 출토 람리산 삼양동식 대형 호형토기와 폐기장 출토 닻돌이 출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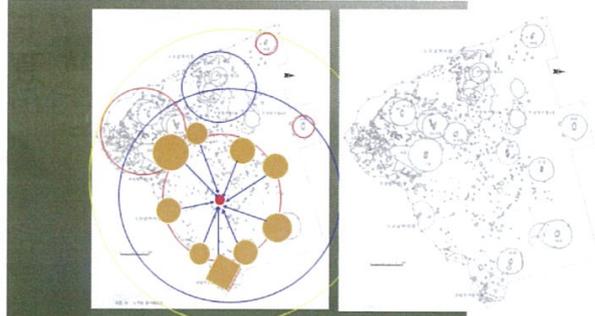


- 그런데 제주의 어떤 곳보다도 '중한과의 장사시기'에 한반도와 해상교류의 유물이 가장 많이 출토된 유적은 단연 삼양동유적이다. 이 유적은 기원전 4세기경 송국리형 주거문화가 남쪽으로 전파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우리나라 청동기후기의 마지막 단계의 대단위 취락 유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 발굴된 고대 삼양동 마을 안에는 크고 작은 움집, 창고, 저장공, 토기가마, 조리장소 뿐만 아니라 마을 공간을 구획한 경계석축과 배수로, 그리고 폐기장, 패충, 고인돌 등이 자리 잡고 있었다. 게다가 당시 사람이 살았던 원형, 장방, 부정형 등 다양한 모양의 집자리(住居址)가 236기나 발견되었다. 그러나 발굴되지 않은 유적을 고려하면 실제 규모는 현재보다 3배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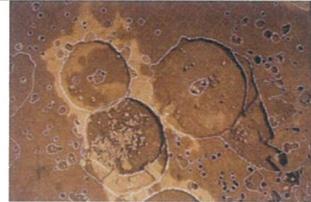


삼양동유적 유구배치도 三陽洞遺跡遺構配置圖

- 삼양동의 원형주거지는 대부분 송국리유적에서 발견되는 '송국리형주거지'와 같은 형태를 보인다. 주거지 내부에서는 점토띠토기, 삼양동식갈색토기, 손잡이토기 등의 토기류가 출토되었다. 그리고 석관, 석촉, 동관, 동촉, 환옥(環玉; 팔찌), 철기, 유리, 구슬, 관갈치루장식, 돌도끼, 돌대패, 솥틀, 갈돌, 갈판, 공이 등의 유물과 함께 쌀, 보리, 콩, 비자, 도토리, 복숭아씨 등 불에 탄 씨앗[炭火穀物]도 확인되었다. 삼양동유적 주거군은 집자리 유구 자체가 완전한 정형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본토나 일본의 아요이시대(彌生時代) 주거지와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다. 유적 한 가운데 집회용 횡터자리[壇址]를 중심으로 작은 광장이 배치되어 있고, 그 주위로 원형주거지가 동그랗게 틀어서 있는 '단위주거군(單位住居群)'의 정형성을 보인다. 즉, 12~15기의 소형 주거지군 안에 6m 정도의 대형 주거지가 배치되어 있는데, 특이하게도 유물은 대형 주거지 안에서만 출토된다. 출토유물은 환옥, 동관, 각종 옥관, 구슬, 동권위와 신분 및 경제력을 상징하는 위세품(威勢品)과 같이 대형그릇, 불탄 씨앗 등이 출토되었다.
- 삼양동 마을유적의 주거 공간배치와 출토유물의 성격으로 미루어볼 때, 한 마을 안에서 신분에 따른 거주지 배치가 달리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이 마을은 불평등한 계급사회를 반영하는 읍락(邑落) 규모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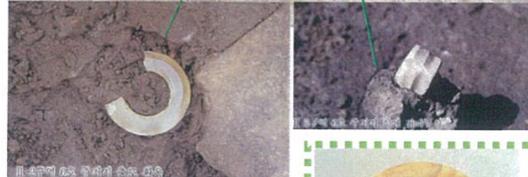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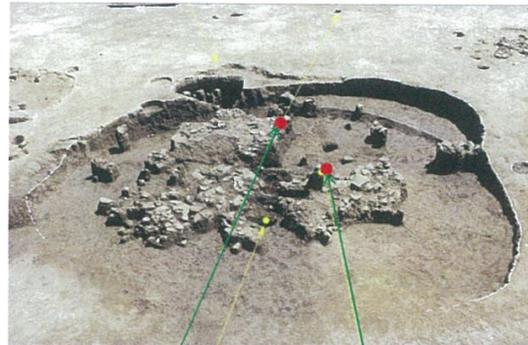


삼양동유적 움집과 창고, 시설물 배치로 본 단위주거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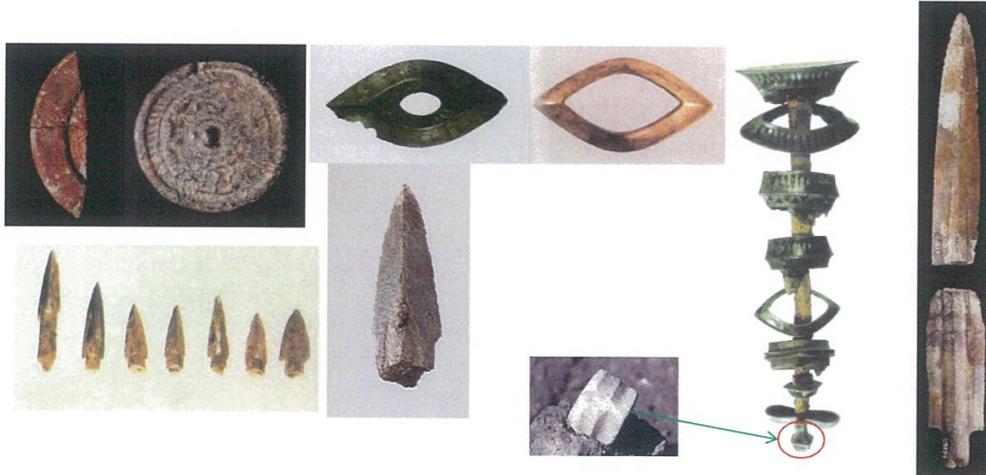
27

- 여기서 출토품 가운데 불평등한 계급사회의 우두머리[首長]의 위세품으로 생각되는 지름 6cm 정도의 옥환(玉環)에 초점이 모아진다. 그런데 삼양동유적의 옥환과 같은 형태의 팔찌는 1세기 초반경 낙랑시대 귀를무덤(木槨墳)인 평양 정오동(貞梧洞) 1호분에서 출토된 바 있다. 또한 일본에서는 교토[京都] 호루오미나미[大風呂南]유적, 후쿠오카[福岡] 후타즈카[二塚]유적, 시마네[島根]현 니시타니[西谷] 2호분 등에서 모두 4점이 출토되었다. 일본에서 출토되는 4점의 팔찌는 모두 유리제품이며 삼양동 출토 옥환보다 제작시기가 늦은 3~4세기경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로 보면 삼양동유적의 옥환은 평양 정오동 1호분 출토품과 동일한 낙랑(樂浪; 漢)에서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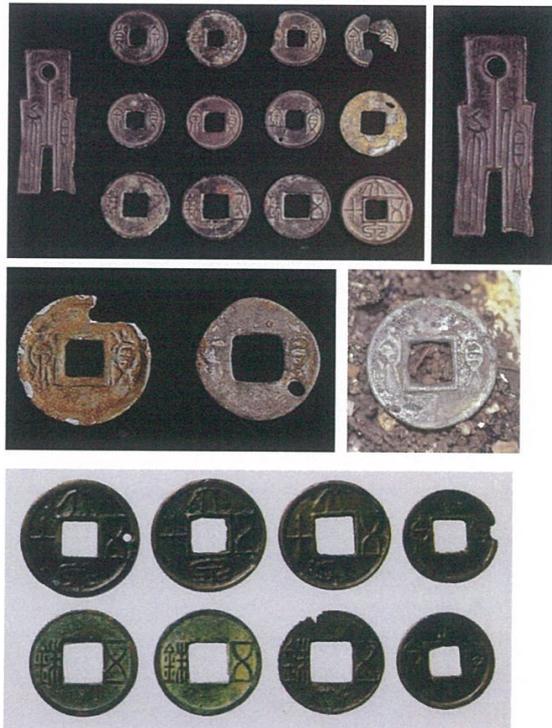


28

- 옥환 이외의 함라조기 교류유물로 삼각형 점토대토기, 세형동검, 동검장식, 삼각형동축(三稜鐵), 등이 있다. 먼저 삼각형 점토대토기는 삼천포 늪도 생산품 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게다가 동축은 삼천포 늪도는 물론 광주 신창동 유적에서도 같은 형태의 동축이 출토되었다. 이를 삼각형동축은 기원전 1세기 초반경의 낙랑 나무곽무덤(板槨墓)인 평양 장백동(貞百洞) 1호분에서 출토된 바 있다. 조연중은 동제(銅製)인 단면 삼각형의 축신(鐵身)부에 철제경부(鐵製莖部) 형태의 삼양동유적의 동축은 광주 신창동(新昌洞)유적의 것과 같은 양두(羊頭)식으로 한대(漢代)에 제작·사용된 것으로 보고 낙랑지역을 통해서 한반도 남해안을 거쳐서 유통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삼양동 출토 동검과 동검장식, 전 산지향 출토 동검과 검파두식, 그리고 제주 중달리 소재 추정 제사유적 돌무지에서 출토되었다고 전하는 세형동검들은 집단 내 우두머리의 신분이나 권위를 알리는 유물로서 일부에서 유입된 것으로 생각된다(조연중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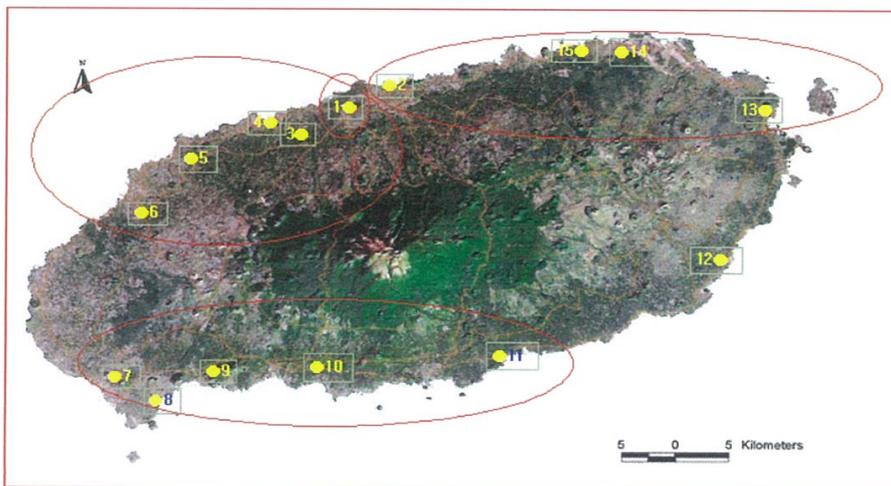
- 또한 기원 1세기대의 교류유물로 산지향 혹은 건입동 출토 한대(漢代)의 환폐와 그 일괄 수입 품을 들 수 있다. 특히 1928년 제주항 축조공사시 항구동쪽의 해안절벽을 폭파하는 과정에서 한대의 환폐, 동경 등이 출토되었다. 산지향 출토 방제경은 중국의 한경(漢鏡)을 모방하여 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방제경은 대체로 낙동강 유역 영남지역의 분묘유적에서 출토되고 있어 한반도에서 제작된 유입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곳에서 출토된 18매 환폐의 종류를 보면 오수전(五銖錢) 4매, 환천(貨泉) 11매, 대전오십(大泉五十) 2매, 환포(貨布) 1매 등이다. 『한서(漢書)』 「식화지(食貨志)」에는 환포, 환천, 대전오십은 대체로 신(新)의 왕망시대(王莽時代)에 주조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여기서 주목되는 환폐는 대전오십, 환천, 환포이다. 이 환폐들 중에 대전오십은 기원 7년에, 환천과 환포는 기원 14년이며, 이들 환폐는 후한(後漢) 광무제(光武帝)때 폐지된 것들이다. 이들 환폐는 주조시기가 기원 1세기대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유적의 연대를 추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자료로 취급된다. 환천은 해남 군곡리, 삼천포 늪도, 김해 등의 남해안 일대와 일본의 북구주(北九州)와 도서 등 모두 해안이나 주변 유적에서 주로 발견되고 있다. 제주도의 경우에도 광지리유적 범위에 포함된 금성리 석축유적에서 2점, 중달리 1지구 패중에서 1점이 확인되어 해안을 중심으로 발견되고 있어 당시 해상교류 활동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들 교류유물을 통해 람리조기[耽羅形成期, 耽羅初期 B.C.200~A.D.200]의 물자교류(삼양동 출토 옥환, 삼릉족, 중달리 출토 세형동검,傳산지향 동경, 중국동전 등)는 다른 지역에 비해 두드러져 중국(낙랑)-삼한(마한·변한)-주호-왜(倭)■ 잇는 동북아 교역의 전체 네트워크 속에 편입되어 국제화되는 단계로 적용·변화에 나갔음을 알 수 있다(조현중 2005, 김경주 2009).



- 이 시기 유적은 모두 대단위 마을유적으로 확인된다. 대표적인 유적은 제주삼양동유적(1996, 1997, 2008~2012) 이다. 2000년 이후 대단위 개발로 인해 환손리유적(2004~2006, 2010~2012), 예래동유적(2008~2010), 인도동유적(2001, 2002, 2005, 2010~2012), 용담동유적(2001~2012), 괏지리유적(2008, 2010~2012), 명월리유적(2010) 등이 확인되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90여 개소[삼양동일대 20개소, 용담동일대 20개소, 인도동일대 10개소, 환손리일대 15개소, 관산리일대 10개소, 괏지리일대 10개소, 강정동일대 5개소 등]의 유적들에 대한 발굴조사가 이루어 졌다. 그중 용담동 2696-2번지유적(제주고고학연구소 2012)은 사적 522호로 지정되기도 했다.
- 2010년 이후 발굴조사된 유적 중 람리조기의 주거 양식과 토기형식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취락 유적은 제주북부권의 삼양동, 용담동, 인도동 취락 유적과 서남부권의 환손리, 예래동취락 유적들을 수 있다.



- 01 용담동마을유적
- 02 삼양동마을유적
- 03 인도동마을유적
- 04 아구리마을유적
- 05 괏지리폐촌 및 마을유적
- 06 동명리마을유적
- 07 동월리마을유적
- 08 상모리유적
- 09 환손리마을유적
- 10 상예동마을유적
- 11 신례리마을유적
- 12 신천리동굴유적
- 13 중달리폐촌 및 마을유적
- 14 관녕리유적
- 15 북촌리동굴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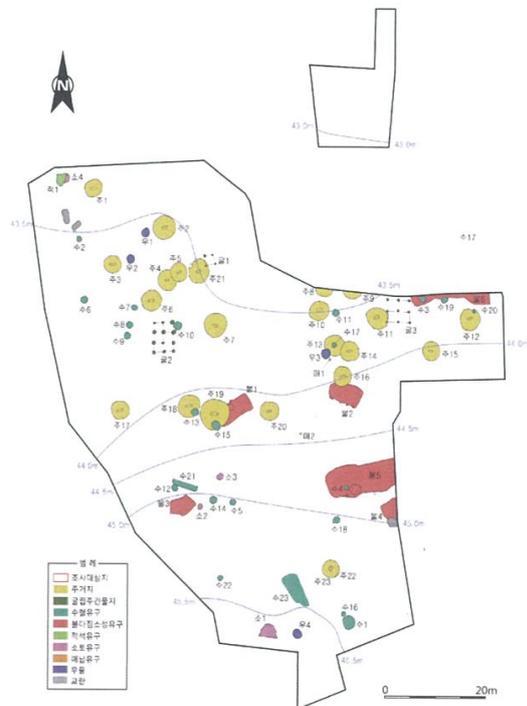
32

- ① 시적 522호 용담동 2696-2번지 유적(제주고고학연구소 2012)은 용담동 일대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 용담동유적을 크게 보면 주거공간[집자리, 불다짐소성유구, 굴림주건물], 저장공간[저장구덩이, 고상기옥(掘立柱建物)], 생산공간[불다짐소성유구, 공방지], 분묘공간[고인돌, 독무덤, 들녘널무덤(石槨墓)], 제의공간 등으로 마을 공간을 분할한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용담동 2696-2번지 유적은 청동기시대 장방형계 취락이 일부 이루어져 있었으나 송국리유형 취락이 제주도로 유입되는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마을유적으로서의 구조와 기능을 갖추면서 확대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 준다. 용담동 일대 송국리형 취락 내부에서는 넓은 범위의 불다짐 소성유구들이 확인된다. 저장시설은 집자리 주변에 2~3기씩 분포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집자리와 떨어져 군집을 이룬다. 특히 용담동 일대 송국리형 취락 내부에서는 우물이 집자리와 공존한다. 또한 굴림주건물[高床家屋]이 송국리형 주거지 군락 안에 자리잡고 있다. 이 굴림주건물(굴림주건물터)은 주로 창고나 망루시설로 추정된다. 이들 송국리형 집자리에서 출토되는 재지산토기[불니입슬무늬토기, 단면 원형·삼각형 점토대토기, 굽은아기리토기, 경질무문토기 등], 외지산토기[외형색경질토기, 연질타날문토기 등]로 볼 때 기원전 4~5세기에서 기원후 4~5세기에 이르기까지 송국리유형 집자리가 용담동 일대에 존속하고 있다. 이로써 용담동유적의 송국리형 취락은 800~1,000년의 존속기간 동안 탐라국의 중심마을로 발전하였음을 알 수 있다(강창환·박근태 2016).



33

- ② 용담동 2697번지 유적(제주문화유산연구원 2014)은 제주시 용담2동 2697번지 외 4필지(사적 522호)로 바로 인근에 용담2동 2696-2번지가 위치한다. 발굴조사를 통해 수혈주거지 23동, 굴림주건물지 3기, 수혈유구 23기, 불다짐소성유구 6기, 적석유구 1기, 소토유구 4기, 매납유구 1기, 우물 4기가 확인되었다. 출토유물은 구순각목문토기, 원형점토대토기, 삼양동식토기 등 청동기시대 중·후기의 유물과 기원 3~4세기대의 인도동식외반구연토기, 타날문토기가 출토되었다. 보고자는 대략적인 유적의 형성시기를 2200BP 전후와 1800BP 전후를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다(박경민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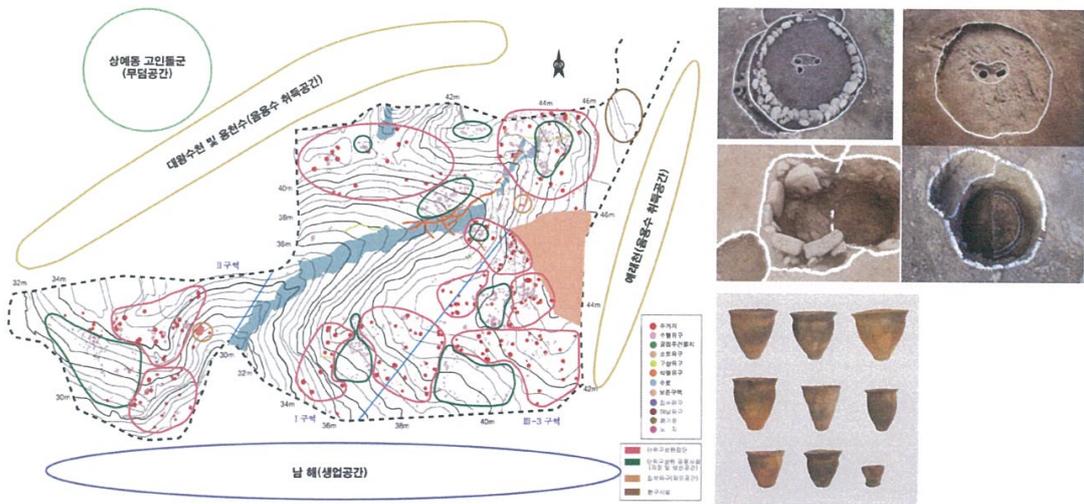
34

- ③ 인도동 유적(제주문화유산연구원 2012~2016, 제주고고학연구소 2012~2016)은 인도천변을 따라 넓게 형성된 탐라시대 전기의 거점취락에 해당한다. 취락은 경계석축을 조성하고 취락 내에는 주거지, 우물, 소토유구, 수혈유구 등이 집봉 분포하는 양상을 보인다. 인도동 유적의 형성시기는 기원후 3~5세기대가 중심시기로 판단된다. 토기는甁상파수를 위주로 하는 소위 제지산 '인도동식토기'가 주류를 이룬다. 반면 외래산토기인 연질계 타날문토기[편구원저단경호, 이중구연호, 개 등]와 경질계토기[단경호, 이중구연호 등]가 확인되고 있다(김경주 2016).



35 35

- ④ 예래동 유적(제주문화유산연구원 2010)은 예래동 해안단구의 상단인 해발 30~68m의 대지상에 자리하고 있다. 발굴조사를 통해 주거지 265동, 굴림주건물지 16동, 수혈유구 2,104기, 소토유구 24기, 아와노지 2기, 구상유구 16기, 환구시설 7기, 집석유구 3기, 배수유구 6기, 집수유구 45기, 매납유구 3기, 폐기장 1개소, 수로 1개소 등 2,493기의 유구가 확인되었다. 보고자는 예래동유적의 중심연대를 삼양동식토기와 인도동식토기가 동반 출토되고 있는 점과 AMS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보면 B.C. 4~2세기 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유적의 하한을 평행문과 격자문 등 외래계인 외청색경질토기가 있어 A.D. 4~7세기대로 보고 있다(나정옥 2016).



36

- ⑤ 함순리 유적(제주문화예술회관 2005, 제주고고학연구소 2012~2015)은 지난 2005년 (주)한국남부발전 남제주화력발전소의 중설에 따라 실시된 발굴조사를 통해 송국리형주거지 124기, 수혈유구 270기, 소성유구 18기, 굴림주건물지 3기, 집석유구 2기, 용관묘 3기 등 총 422기의 유구가 확인된 바 있다(제주문화예술회관 2006), 그 후 2011년부터 창고천 정비사업부지내 유적, 함순 도시계획도로부지내 유적, 함순리 690번지 유적, 함순리 537-3번지 유적, 함순리 537-5번지 유적, 함순리 527.528번지 유적, 함순리 677-1번지 유적, 함순리 538번지 유적, 함순리 541번지 유적, 함순리 717.718번지 유적, 함순리 715.716번지 유적 등 최근까지 다수의 유적들이 발굴조사되었다. 함순리 일대 유적에서 확인되는 유물은 토기류[공혈토기, 구순각목토기, 직립구연토기(창고천 유적, 함순 715.716번지 유적)와 경질무문토기(외반구연호, 외지산 태토의 연질타날문토기, 외정색타날문토기 등], 석기류[공이, 골돌, 갈돌, 갈판, 석작, 지석, 석부 등], 토제품[방주차, 원판형토제품, 이형토제품], 특히 함순 도시계획도로 유적과 창고천 유적에서 제주도에선 최초로 돼지모양의 토우, 토제경이 확인되었다. 청동제품으로는 만입형 청동화살촉(창고천 유적)과 조문경편(함순 541번지 유적)이 확인되었으며 철제품은 철투겁창, 철도자, 철검, 철촉(함순도시계획도로 유적) 등이 출토되었다(양용진 2016). 특이하게도 전제간 『삼국지』 위치 등이 전에 나오는 '주호(州湖)' 기록 중 "소안 돼지를 잘 기른다.[好養牛及猪]을 증명하는 돼지모양의 토우가 수점 출토되었다(제주고고학연구소 2015).



37

- 이들 유적의 발굴 결과를 토대로 탐라 초기의 문화상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이 시기는 주거양상에 있어서 제주도 청동기 후기(3기)단계의 역삼동식 장방형 또는 방형계 주거형태와는 다른 원형계의 송국리형주거지가 출현한다. 이 시기가 되면 소규모 취락단계에서 삼양동, 용담동, 외도동, 함순리 등에 비교적 대규모의 취락[大規模 聚落]이 형성되는 단계에 해당한다(김경주 2009).
- 탐라초기에 이르러 마지막 단계의 제주도식 고인돌[支石墓]이 축조되기 시작한다. 제주도 고인돌의 축조 흐름은 보면, 청동기시대에는 지하매장 주체부를 둔 남방식과 개석식(1~2명식)이 주류를 이루다가 점차 반지상형의 위석식 고인돌(3~4명식)로 바뀌고 탐라초기에 이르러서는 장방형과 원형의 지상 위석식의 제주도식 고인돌(5~6명식)로 이어진다(김경주 2009). 또 탐라초기에는 고인돌과 더불어 삼양·도련동, 함순리유적에서 용관묘도 함께 축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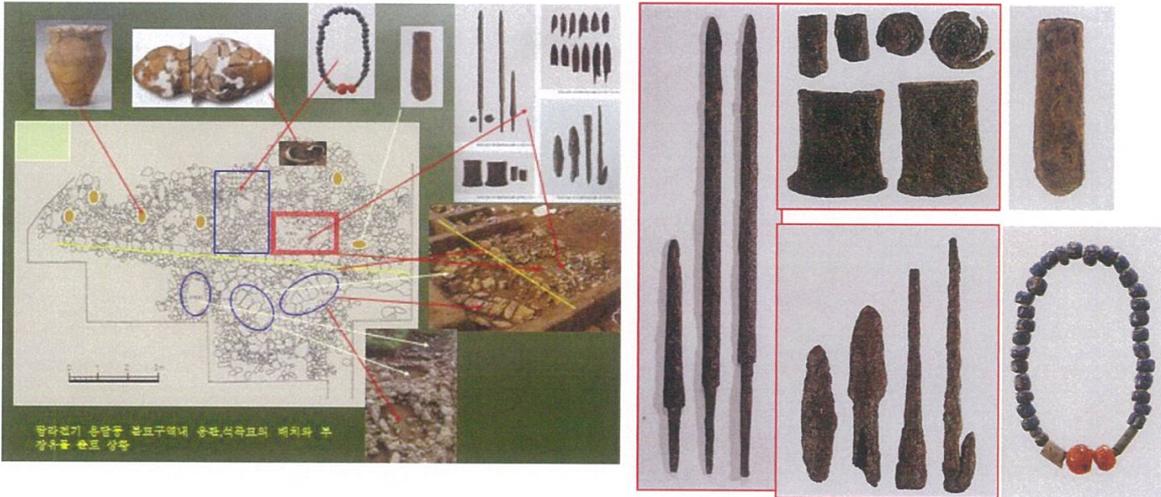
- 이 시기의 마을유적으로는 전기에는 삼양동·용담동·동명리유적, 중기에는 함순리·예래동유적, 후기에는 외도동 유적을 대표적인 유적으로 들고 있다(김경주, 2009). 특히 중기에 이르면 세대별 분묘화가 더욱 진행되고 계층분화가 심화되며 계중구조의 불평등화를 시사하는 유물(동경, 옥환, 동려, 동축, 화폐 등)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김경주, 2009).



38

2) 탐라전기[耽羅前期, A.D. 200~500]

이 시기의 개시연대를 탐라수장층의 출현을 알리는 용담동 적석목관묘[철기부장묘]의 축조시기로 설정하는 데는 이견(異見)이 없다. 용담동 철기부장 적석목관묘의 유물 세트는 탐라소국으로 통합한 최고지배층의 부장품이자 계층구조의 불평등화(不平等化)가 심화되는 최고조의 과정에서 등장한 지배 계층의 출현을 의미한다(김경주 2009). 탐라전기에는 제주전역이 인도동식도기에서 발전한 광지리식 외반구연토기 문화권으로 묶어지며, 종달리인 광지리 등에 대규모패층이 만들어지게 된다(김경주 2009).



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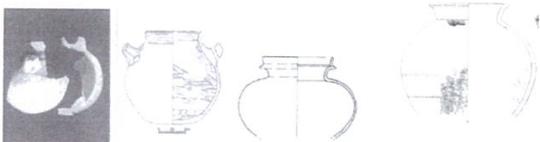
- 또 이 시기에는 중심취락 중심으로 소규모 취락이 늘어나는 양상이 나타난다(김경주, 2009). 이러한 소규모 마을의 증가는 결국 급격한 인구수 증가의 결과이다. 소규모취락이 증가하게 되고 확대되는 일련의 사회변동 과정에서 중심취락의 기능과 역할이 중대되었을 것이다(김경주 2003).
- 탐라전기의 3~5세기대 취락에서는 인도동주거지를 근간으로 하며 인도동식도기와 광지리식도기가 성행한다. 이러한 재지산토기와 공반출되는 외래계토기는 양이부호, 이중구연토기, 조족문토기 등 미한계토기류이다(김경주 2012). 이들 외부 교역토기들은 모두 광지리식도기와 공반 출토되고 있어 전대에 이어 외부와의 교류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김경주 2009). 이 시기는 백제가 영산강, 섬진강유역을 병합하기 이전 시기로 미한 세력과의 지속적 교류가 진행된다(김경주 2012).



외도동식도기 일괄(국립제주박물관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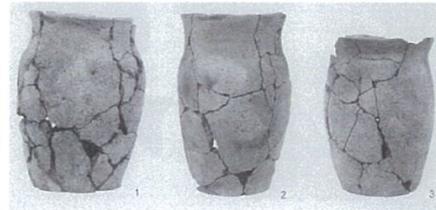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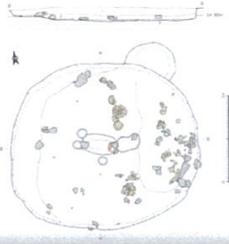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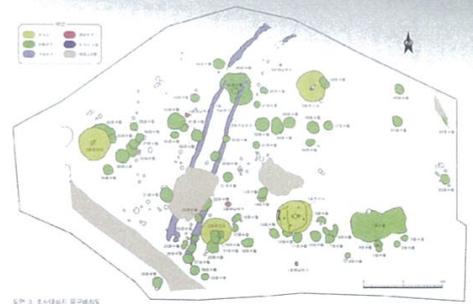
광지리식도기 일괄(제주도사추진협의회 2000)



3~5세기 양이부호(괘지패총 5지구), 이중구연호(외도동), 조족문토기(종달리 1707)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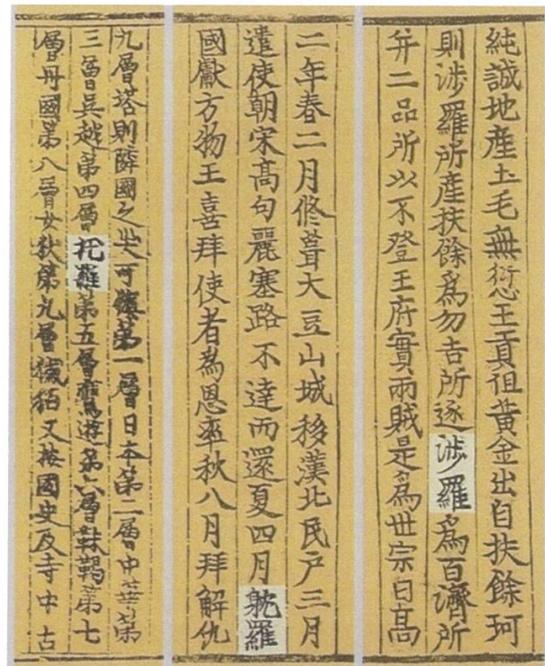
- 이 시기의 마을유적은 곽지리 8지구(곽지리 농산물집하장 및 저온저장시설 신축부지내) 유적에서 확인되었다(미한문화연구원 2009). 이 마을유적에서 확인된 원형주거지는 송국리형 원형주거지가 지상화된다는 과정을 보여주며 AMS 절대연대가 A.D. 450~480로 산출되었다. 곽지 8지구 마을 유적은 곽지리 고대 취락구역과 패총구역의 공간 분할했을 기능성의 상정권 함께 제주 북부지역 취락유적과의 관계 및 발전 과정을 이해하는데 귀중한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유적의 조사를 통해 원형수혈주거지가 지상화되면서 수혈주공이 아닌 대석(礎石)을 사용하는 탐라형 주거지가 완성된다. 이시기의 주거지는 용담동, 강정동유적에서 일부 확인된다. 더불어 특수용도의 주거지로 지상화된 주거지 내부에 배수시설이 배치된 소위 '임도동식 주거지'가 임도동, 용담동, 하귀리유적에서 확인되기도 한다.



41

3) 탐라후기[耽羅國時代, A.D. 500~1105]

- 탐라후기[耽羅國時代, 500 ~ 935]의 문헌기록에 '탐라(耽羅)' 등의 이름으로 대외적으로 알려지는 시기이다. 『삼국사기(三國史記)』, 『수서(隋書)』, 『당서(唐書)』, 『일본서기(日本書紀)』, 『신당서(新唐書)』, 『구당서(舊唐書)』, 『당회요(唐會要)』 등의 내용을 참조해 보면 탐라는 6~7세기에는 백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7세기 중엽 이후에는 신라와 관계를 맺었던 것으로 나온다. 또한 독자적으로 일본과 여러 차례의 왕래·통교를 한 내용이 기록되었을 뿐 아니라 당나라에도 사신을 파견했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자료 분석을 통해 탐라국은 주변 지역과의 자체적 대응이자 독자적 노선을 가진 교역중심의 국(國)체제를 유지해 나아갔음을 알게 한다.



① 삼국유사 항룡사 구충담조 ② 삼국사기 백제본기 문주왕 2년(476)
③ 삼국사기 백제본기 위덕왕 36년(589)

42

- ① 이러한 교역의 국가 비중도와 탐라국의 위상을 알리는 대표적인 유적은 단연 용담동제사유적(이정규·강창환 1993, 제주대박물관, 1993)이다. 용담동 제사유적에서 출토된 그릇은 모두 통일신라시대에 제작된 회색도기로, 문양은 시문수법에 따라 그은무늬와 짙은무늬, 두드림무늬, 돌대무늬로 나누어진다. 대체로 용담동 제사유적 출토 회색도기군은 전라남도 영암 구림리 도요지에서 출토되는 9세기대 광경병, 세경병, 목근병 등과 기종이 너무도 유사하다. 특히 이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들을 분석해 보면 탐라[耽羅國]도 국가로서의 체제를 갖추고 적극적인 교역을 추진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시사하는 대표적인 유물이 금동제허리띠장식이다. 이와 같은 금동제 허리띠 장식은 단연하기 어려우나 지금까지는 경주지역이나 다른 신라지역에서 확인된 바 없어 중국 당나라와의 직교를 통해 들여온 물품일 가능성도 있다. 이 외에도 용담동제사유적에는 중국 당나라와의 교류를 입증하는 또 하나의 유물이 있다. 8세기경에 중국 절강성(浙江省) 월주요(越州窯)에서 생산된 중국제 청자인 대접과 주전자기 바로 그것이다. 결국 이러한 유물들은 탐라국이 주변 지역과 자체적으로 대응하고 독자적 노선을 가진 교역중심의 국가 체제를 유지하던 상황 속에서 수입된 교류 물품인 셈이다(강창환 2010).



43

- ② 또 하나의 중요한 유적으로 고내리 생산유적(1994, 1995)이 있다. 이 유적은 아외 노천가마 20여기가 확인된 토기생산유적이다(강창환 1995). 여기서 자체 생산된 토기는 적갈색 심발형의 고내리식 토기이다. 이 유적은 우리나라에서 통일신라시대까지 이어진 마지막 아외가마 유적으로 산화염에서 구워낸 적갈색토기 생산유적이다. 기존의 토기보다는 보강제의 혼입이 적고 경질의 산화염소성 토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기온과 달리 더 높은 온도를 내는 소성가마가 필요했을 것이다(이상미 2001). 이 토기는 6세기 후반 백제토기의 제작기법이 도입된 이후 재지화되고 점차 발전하여 7세기 중반경에 고내리식토기로 처음 출현한 것으로 보고 있기도 하다(김경주, 2009). 고내리식토기의 성행 제작시기는 대략 8세기 중엽에서 9세기 중반경이다(강창환 외 1996). 고내리 생산유적은 아마도 탐라국이 경영했던 전문적인 공방마을 존재를 시사하는 것은 아닐까.



44

- ③ 덧붙여 이 시기의 유적으로 골목할만한 고고학적 성과를 낸 유적이 있다. 바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구좌읍 용천동굴유적이다. 용천동굴 유적조사(2009, 2010)를 통해서 동굴벽화와 수중에서 통일신라시대 8~9세기대의 인화문이 시문된 대부장경병(臺附長頸瓶), 광견병(廣肩瓶), 장군, 광견호 등의 도기류와 철기류 등이 다량 확인되었다(국립제주박물관 2011). 이들 토기류는 모두 경주 왕궁, 혹은 전라도 남해안 가마에서 생산된 것들이다. 게다가 이들 용기는 당시 매우 고급 그릇에 해당되며 그릇의 용도는 제기(祭器)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강창환 2010).



- ④ 탐라후기에 해당하는 유적으로 2013년에 조사한 중달리패총 5지구(중달리 1819번지) 발굴조사(제주문화유산연구원 2014) 결과가 주목된다. 패총조사 결과 탐라시대 I기중에서는 4~6세기대를 중심으로 하는 곡지리식토기, 연질 단경호, 양이부호, 철기 등이 출토된다. 반면 탐라시대 II기중에서는 6~7세기대의 중달리식토기, 조족문토기, 장동병 등이 출토된다. 보고자는 탐라시대 I기중은 탐라와 영산강유역의 마한세력간의 관계, II기중은 통일신라(新羅下代)와의 관계 전환으로 이해하고 있다. 특히 탐라시대 III기중은 7~9세기로 중달리식토기에서 새로운 그릇인 고내리식토기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각종 인화문이 시문된 병류, 물대문대호, 주름문병 등이 사용되는 시기로 보았다. 탐라시대 IV기중은 고내리식토기가 일부 잔존하지만 주름문병과 해무리굽완의 등장하는 9세기대를 상한으로 보고 고려 초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제시했다(박재현 2016).

- ⑤ 한편 중국 문헌에 등장하는 철제농기구(鐵製農器具)에 대한 기록으로, 실제로 수입된 철제 농기구가 발굴된 바 있다. 그 철제 농기구는 비로 고무래(쇠스랑)인데, 唐나라때 『新唐書』 320, 僂羅條에 나타난다.
- “용삭(龍朔) 조에 탐라(僂羅)가 있었는데, 그 왕은 유리도라(需李都羅)였다. 왕은 사신을 보내 입조(入朝)하였다. 그 나라는 신라의 무주(武州) 남쪽에 있는 섬이다. 그 풍속은 소박하여 누주(牛)여서 개나 돼지의 가죽으로 옷을 애 입는다. 여름에는 가죽으로 두툼한 집에서 살고, 겨울에는 굴속에서 지낸다. 오곡이 나지만 경작하는데 소를 사용할 줄 모른다. 철제 고무래(쇠스랑)를 가지고 땅을 판다. 처음에 百濟에 소속되었는데, 인덕(麟德) 연간에 그 주장이 입조하여 황제(帝)를 따라 태산(太山)에 이르렀다. 그 뒤로는 新羅에 소속되었다.[龍朔初有僂羅者 其王需李都羅 遣使入朝 國居新羅武州南島上 俗朴陋 疑犬豕皮 夏居草屋 冬屈室 地生五穀 耕不知用牛 以鐵齒耙土 初附百濟 麟德中 酋長來朝 從帝至太山 後附新羅.]”
- 이 기록에서는 僂羅를 ‘龍羅’라 했다. 그 당시 탐라 국왕은 需李都羅이다. 이 기록들은 백제가 멸망하고 신라가 당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는 시기에 해당된다. 기록내의 龍朔은 唐 高宗의 연호로서 서기 661~662년에 해당된다.
- 위 기록 중 “ 땅에서는 오곡이 나지만 땅을 가는 데는 소를 부릴 줄 모르며 쇠로 쇠스랑을 만들어 땅을 판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제주도의 토질이 자갈이 많고 적박한 하여 우경(牛耕)이 힘들어 그 보다는 오히려 쇠스랑을 사용하는 편이 보다 용이했을 것이다.
- 실제로 통일시기에 수입된 고무래(쇠스랑)가 확인되었다. 2005년에 발굴한 신지천 음악분수대 옆 견입동 제일주자장발당부지내 1호 수혈유구에서 제주산 고내리식토기와 함께 출토되었다(제주문화유산연구원 문화재연구소 2007). 이 수혈유구에서는 사슴뼈등 함께 출토되어 저장시설로 추정된다(강창환 2012).
- 또한 위 기록 중 “여름에는 가죽으로 두툼한 집에서 살고, 겨울에는 굴속에서 지낸다.[夏居草屋 冬屈室]” 과 “그집은 둥글게 돌담을 두르고 지붕은 풀로 덮었다.[其屋宇爲圓牆 以草蓋之]” (『신당서(新唐書)』 권100, 耽羅國條)에 등장하는 지상식 원형돌담집이 실제로 발굴된 바 있다. 1993년 예일-신창국 도12호선 화포정공사구역내 금성리 석축유적 발굴조사에서 정연하게 돌담을 둘러친 원형 지상식 울집터가 확인되었다(제주서정림사업추진협의회 2001, 강창환 2012).
- 또한 『신당서(新唐書)』 권100, 耽羅國條에는 661~662년경 “탐라의 다섯 부락으로 나누어져 있고 인구가 8천호구이다”고 기록되어져 있다. 이 『신당서(新唐書)』는 서기 961년에 편찬된 唐代 서적임으로 이 인구는 960년경의 탐라인구를 8,000명으로 보고 이를 역환산하여 260~280년경 주후시기에는 3,971명, 백제 문주왕 2년(476)에는 4,851명이라는 확신이 있다(진영일 2008).



견입동 제일주자장발당부지내 1호 수혈유구인 쇠스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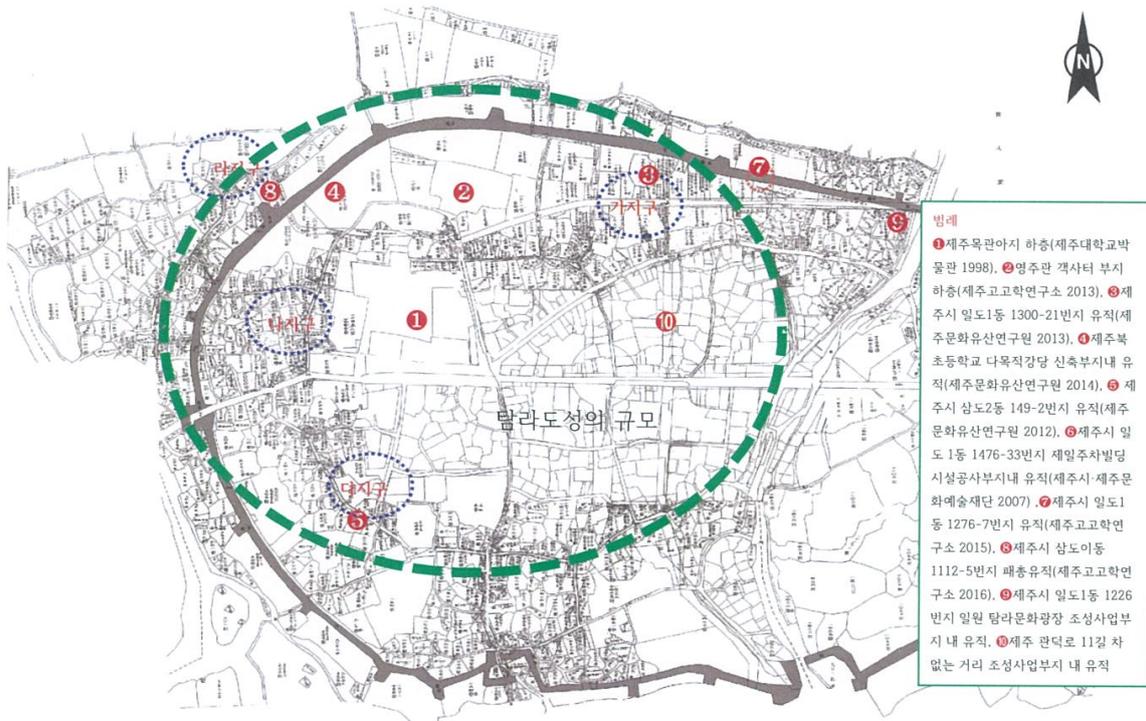


금성리 석축유적 원형 지상식 울집터

- ⑥ 특히 일도동·삼도동을 중심으로 제주읍성내에는 탐라후기[耽羅後期, 耽羅國時代, 統一新羅時代, AD.500~AD.936]에 해당하는 주거지와 다수의 수혈유구, 주혈 등이 확인되는 유적들이 산재해 있다. 유적은 일도동과 삼도동 일대로 집약되는데 제주목관아지 하층(제주대학교박물관 1998), 영주관 객사터 부지 하층(제주고고학연구소 2013), 제주시 일도1동 1300-21번지 유적(제주문화유산연구원 2013), 제주북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중축부지내 유적(제주문화유산연구원 2014), 제주시 삼도2동 149-2번지 유적(제주문화유산연구원 2012), 제주시 일도1동 1476-33번지 제일주차빌딩 시설공사부지내 유적(제주시·제주문화예술재단 2007), 제주시 일도1동 1276-7번지 유적(제주고고학연구소 2015), 제주시 삼도이동 1112-5번지 패총유적(제주고고학연구소 2016), 제주시 일도1동 1226번지 일원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부지 내 유적, 제주 관덕로 11길 차 없는 거리 조성사업부지 내 유적 등이다. 특히 제주목관아지 하층에서 통일신라말~고려초 문헌중과 주조적심석(柱礎積心石)이 3m 간격으로 확인된 바 있어 제주목관아 2m 미중에는 성주정(星主廳)과 같은 기와건물이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고고학적 자료의 분석을 통해 탐라후기인 6세기경에 탐라의 중심지[都邑地]가 용담동에서 일도·삼도동으로 옮겨 갔음[遷都]이 확인된다. 이는 『新增東國輿地勝覽』(1530) 제주목 고적조에 州城[濟州邑城]의 서북쪽에 옛 성터가 있다[州城西北有古城遺址] " 기록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강창환 2016).



성곽추정시설 : 6세기대 금성리유적 석축시설물(길이 62m, 폭 4.2m, 높이 2.5m) 축조상태(제주대학교 박물관 1993)



현재까지 확인된 탐라후기[耽羅後期, 耽羅國時代, 統一新羅時代, AD.500~AD.1105]에 해당하는 10군데 유구와 중위상향을 직접별로 연결하면 제주목관아를 중심으로 '무근성[목은성] 북쪽, 병문전 동쪽과 산지천 서쪽, 그리고 이아(二衙)의 남쪽으로 연결되는 탐라도성의 규모가 대략 그려진다. 예측되는 당시 탐라도성의 규모는 적어도 제주읍성 초축(初築) 시기(1454년)에 나타난 둘레 910보(1,317m) 보다는 넓지 않았을 것이다.

- ⑦ 탐라말기에 해당하는 신창리 해저유적(1982, 1996)에서도 중요한 교류 증거가 포착된다. 한 평면 신창리 앞바다 '마리여코지'의 수중에서 중국 상선이 난파되면서 남송대(南宋代)에 해당하는 금제 팔찌와 도자기 등 50여 점이 발견되었다. 이 유적은 고려시대인 12~13세기경에 중국의 짙강성 또는 복건성(福建省) 지역에서 출발하여 일본의 구주지역이나 혹은 제주도를 교역의 기착지로 삼아 항해 해온 남송의 무역선이 난파된 흔적이다. 여기에서 발견된 정자들은 중국 절강성 용천요(龍泉窯)에서 구운 정자로 일부 향아리편이 있으나 대부분 생활용기인 대접이다. 문양은 조화문과 연판문, 구름문이 확인된다. 특히 대접 안쪽바닥에 '하빈유범(河濱遺范)', '금옥만당(金玉滿堂)' 명문이 사각 안에 음인각(陰印刻)되어 있다. 이러한 하빈유범과 금옥만당의 명문대접은 남송대(1129~1279)인 12세기 말에서 13세기 초반에 용천요계의 금촌요(金村窯)에서 제작되었기 때문에 제작 시기와 장소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이 그릇은 일본 구주의 태재부(太宰府)유적에서도 같은 유물이 출토되었다. 이외에 가고시마[鹿兒島] 창목기(倉木岐) 해저유적 등지에서 확인된 바 있다. 제주도내에서는 고내리유적에서 2점의 조화문과 연판문 정자대접이 확인되어 이 난파상선과 동일시기에 실제로 정자가 수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강창환 2010). 이 해저유적은 지난 2016년, 제주고고학연구소는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의 2016 제주학 기초연구사업의 일환으로 2016년 5월부터 6개월 간 '동아시아 해상 무역로에서 제주도의 위상에 대한 실증적 연구 제주 신창리 해저 유적 출수 중국 도자기와 동시기 일본의 중국 도자기 수용 양상의 비교를 중심으로' 주제로 학술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강창환 외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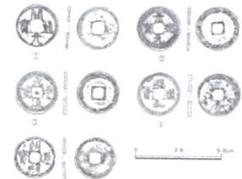


新昌里 海底遺蹟에 대한 研究를 통해 宋元時期 동아시아에는 福州→寧波→濟州→韓半島 南海岸으로 連結되는 陶磁 交易 루트인 福州→寧波→濟州→日本 博多 또는 琉球諸島→九州로 이어지는 航路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宋元時期 동아시아 陶磁交易에서 濟州는 既存 認識되었던 것보다 더욱 積極的인 役割을 擔當하였을 것으로 生角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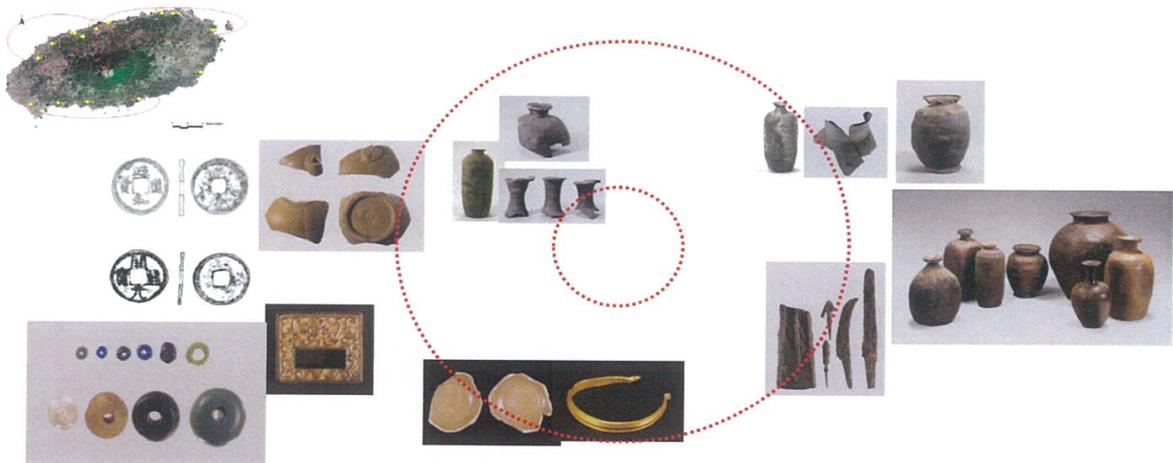


남송대(1129 ~ 1279) 용천요계 금촌요(金村窯) 제작

- ⑧ 게다가 고내리 유적에서는 이 정자와 함께 북송대(北宋代)의 인형원보(熙寧元寶, 1068 ~ 1077), 소성원보(紹聖元寶, 1094 ~ 1097) 등이 동전이 출토된 바 있다. 또한 위도 수정 시기에서도 고려 전기 해남 진산리에서 생산된 녹청자와 함께 북송대의 경덕원보(景德元寶, 1004 ~ 1007), 원풍통보(元豐通寶, 1078 ~ 1085), 정화통보(政和通寶, 1111 ~ 1117) 등이 수입 동전 화폐가 확인된다. 이처럼 제주도는 탐라국시대 후기까지도 중국-한국-일본을 잇는 중간 기착지 혹은 경유 지로서 중국 상선이 지나가는 길목이었음을 알 수 있다(강창환 2010). 이처럼 탐라말기(耽羅末期, 936~1105)는 고려 초기의 녹청자와 해무리굽 초기정자, 송대(宋代) 교역도지(交易陶瓷), 중국동전 등이 확인되며 이들 유물의 분포권은 14세기 문헌에 등장하는 대촌현(大村縣)을 비롯한 제주(濟州) 17현촌(縣村)과 연결된다.



外部洞 水精寺址 出土 北宋代 景德元寶, 元豐通寶, 政和通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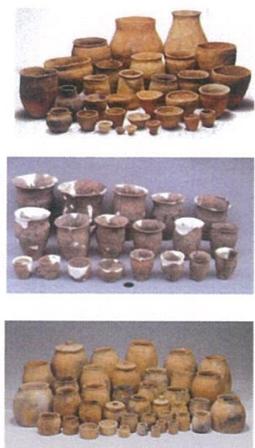
- 필자는 앞서 기술한 탐라시대[탐라조기-탐라전기-탐라후기-탐라말기]유적의 발굴성과를 바탕으로 나름대로 시대 구분과 문화변천을 표로 제시하고자 한다(표 3 참조).

〈표 3〉 탐라조기~탐라후기의 시대 구분과 문화 변천(강창환 2014, 일부 수정)

시대편년	연대	사회변천	제주도 (在地産)	남해안일대 (外地産)	유적 · 유구 · 층서
耽羅 初期 (耽羅形成期)	1기	B.C.200 ~A.D.1 · 대규모 취락사회 · 중심취락의 형성 · 불평등사회 완전 진입	삼양동식 토기	점토대토기	· 제주형 송국리형주거지 축조 · 삼양동유적, 용담동유적
	2기	A.D.1 ~200 · 대규모 취락사회 · 거점취락의 등장 · 단위세대별 분화 · 수장층의 등장	인도동식 토기	회색연질토기	· 송국리형주거지의 상행 · 인도동식주거지의 출현 · 삼양동유적, 화순리유적, 인도동유적, · 이귀리유적, 중달리지구, 예래동유적
耽羅 前期	A.D.200 ~500	· 거점취락의 확장 · 수장층(지배엘리트) 의 성장	곽지리식 토기	인형색경질토기 미안계토기	· 송국리형주거지의 소멸 · 인도동식주거지의 발전 · 용담동 절기부장묘(3세기조)의 축조 · 곽지패총, 중달리패총
耽羅 後期 (耽羅國時代)	1기	A.D.500 ~660 · 국주(國主) 지배사회 · 위계화 조기사회	고내리식 토기	백제계토기(?)	· 인도동식주거지의 발전 · 지상형 초석주거지 등장 · 삼도동유적, 곽지패총, 중달리 패총
	2기	A.D.660 ~936 · 취락의 집중세분화 · 대국과의 적극적 교역		통일신라토기 회색도기 당(唐)정자	· 지상형주거지(지상식 원형(圓頂 울림)) · 용담동제사유적, 고내리생산유적, · 견일동제일주사장부지, · 용암동굴제사유적
	3기	A.D.936 ~1105 · 성주제세사회 · 고려간섭기 (구당사피견)	-	고려도기 녹청자 송(宋)정자	· 원형, 장방형 초가 · 원당사지 1기, 수정사지 1기 · 고내리유적

4) 탐라(耽羅) 연구의 성과와 과제

- 지금까지 탐라(耽羅)에 대한 고고학 연구는 이창규(1995), 강창환(2003, 2005, 2010, 2016), 김경주(2000, 2003, 2005, 2009, 2010, 2012, 2013, 2015), 이상미(2001), 박재현(2014)의 논문과 글이 대표적이다. 이창규(제주도고고학연구, 1995)의 박사논문 이후 탐라에 대한 연구 논문과 글이 급증하는 바탕에는 1996년부터 대단위 마을유적[삼양동유적, 용담동유적, 인도동유적, 화순리유적, 예래동유적 등]이 본격적으로 조사되어 1,500기 이상의 송국리형주거지, 재지화된 제주형 원형주거지 자료가 축적되었기 때문이다.
- 더불어 제주도내 탐라 취락유적에서는 지역별로 특징적이고 표식적인 토기가 출토된다. 특히 탐라시대 재지산 토기의 흐름이 파악되는데 탐라조기[형성기]에는 삼양동식토기와 인도동식토기, 탐라전기에는 곽지리식토기, 탐라후기에는 고내리식토기로의 전개양상이 나름대로 파악된다. 다만 탐라조기의 용담동식토기와 화순리식토기, 탐라전기 후반에서 탐라후기 초반의 중달리식토기는 한 시기의 지역색토기로 아직 인정하기에는 좀 더 자료 보충이 요구된다.
- 탐라조기[耽羅形成期, 耽羅初期, B.C.200~A.D.200]의 물자교류(삼양동 출토 옥환, 삼릉축, 중달리 출토 세형동걸, 傳산지항 동경, 중국동전 등)는 다른 지역에 비해 두드러져 중국(낙랑)-삼한(마한·변한)-후조-왜(倭)를 잇는 동북아 교역의 전체 네트워크 속에 편입되어 국제화 되는 단계로 적응·변화에 나갔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 시기의 탐라형성기[耽羅成立期] 전기에는 삼양동·용담동·동명리취락, 중기에는 화순리·예래동취락, 후기에는 인도동취락을 대표취락으로 선정하고 있다(김경주, 2009).



- 탐라전기[耽羅前期 A.D.200~500]는 탐라수장층의 출현을 알리는 용담동 적석목관묘[철기부장묘]의 축조 시기를 개시 연대로 설정하고 있다. 용담동 철기부장 적석목관묘의 유물 세트는 탐라소국으로 통합한 최고 지배층의 부장품이자 계층구조의 불평등화(不平等化)가 심화되는 최고조의 과정에서 등장한 지배 계층의 출현을 의미한다(김경주 2009). 탐라전기의 3~5세기대 취락에서는 인도동주거지를 근간으로 하며 인도동식 토기와 광지리식토기가 성행한다. 이러한 재지산토기와 공반출되는 외래계토기는 양이부호, 이중구연토기, 조족문토기 등 미얀계토기류이다(김경주 2012).
- 앞으로는 탐라조기~전기시대의 연구는 기존의 연구 틀에서 벗어나 마을과 마을간의 관계, 중심과 주변과의 관계, 생업체제, 교류관계, 생산체제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연구의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강창환 2014).
- 탐라후기[耽羅國時代, 耽羅後期, A.D.500~1105]는 문헌기록에 ‘탐라(耽羅)’ 등의 이름으로 대외적으로 알려지는 시기이다. 이 시기의 탐라는 기록으로는 6~7세기에는 백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7세기 중엽 이후에는 신라와 관계를 조공외교를 맺으나 고고학적 자료에 의하면 백제계 유물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만 8세기대 이후 신라와 중국 당(唐)의 교류유물이 적극적으로 유입된다. 이 시기의 탐라국은 주변 지역(신라, 당, 일본)과의 자체적 대응이자 독자적 노선을 가진 교역중심의 해양국가(國家)의 체제를 유지해 나아갔음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제주시 목은성 일대[일도동·삼도동 일대]의 고고학적 자료 분석을 통해 탐라후기인 6세기경에 탐라의 중심지가 용담동에서 일도·삼도동으로 옮겨 갔을[遷都]이 확인된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교류유물이 확인되는 유적은 용담동 제사유적, 용전동굴 내 제사유적, 신창리 해저유적 등이다. 더불어 탐라국이 경영했던 전문적인 공방마을의 존재를 알리는 고내리생산유적 등이 확인된다.
- 이 시기 고고학적 정점 유적인 탐라국주의 무덤, 탐라왕궁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차후 이들 유적이 발견되어 구체적인 발굴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오늘 미진했던 탐라국의 실체는 좀 더 명확해 질 것이다.

4. 중·근세 유적의 발굴조사 성과

제주 역사고고학 분야는 선사고고학분야의 진전과 더불어 괄목할만한 발전을 보여주고 있다. 1990년대부터 시작된 중세~근현세로 이어지는 유적발굴조사는 크게 사지[寺刹址], 관아지[官衙址], 분묘(墳墓), 방어(防禦)유적, 생활(生活)유적 등으로 나누어진다. 사찰유적[寺刹址]은 고려~조선시대의 법화사지(1991~1997), 수정사지(1999~2000), 존자암지(1993~1994), 원당사지(1988, 2005, 2006) 등이 발굴조사 되었다. 최근에는 2006년 이후 사찰유적에 대한 발굴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다만 2011년 한라산 영실 존자암터에 대한 지표조사와 학술 심포지엄이 있었다. 관아지[官衙址]유적으로는 조선시대 제주목관아터(1992~1998, 2004, 2005) 정인현정터(2003, 2012, 2013) 정인현 객사터(1994), 대정현성내 주사유허지(2008), 정인현관아지(2008~2009, 2012~2013), 제주목객사[瀛州館, 2013~2014] 등이 발굴조사 되었다. 지난 2013년에 이루어진 정인현 관아지 발굴조사(제주문화유산연구원 2013)에서는 정의 관아 조선시대 건물지 3동, 부석시설 2개소, 소토유구 2개소, 근대건물지 1개소, 부석시설 2기가 확인되었다. 또한 2013년 제주고고학연구소가 진행한 제주목관아 객사터에 대한 발굴조사에서는 객사터로 추정되는 건물지 1동을 비롯하여 건물지 9동, 담장지, 배수로, 아궁이, 탐라시대 수혈유구 14기, 고려시대 수혈유구 1기, 주혈 등이 확인되었다. 조사된 건물지는 출토된 유물과 잔존하는 기단 등의 형태가 제주목 관아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건물지, 유물상과 동일하게 확인되고 있어 제주목 관아와 관련된 건물지로 판단된다.



西歸浦市 下源洞 法華寺址



中國 龍泉窯 產 青磁陽 刻蓮瓣文大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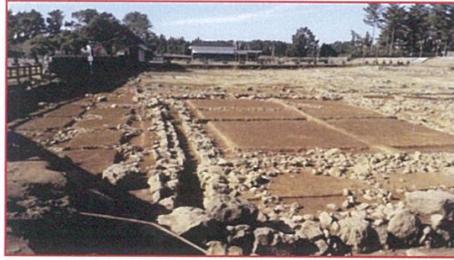
至元六年(1269)己巳始/重初十六(1279)年己卯畢 銘文瓦



雲龍,雲鳳文 막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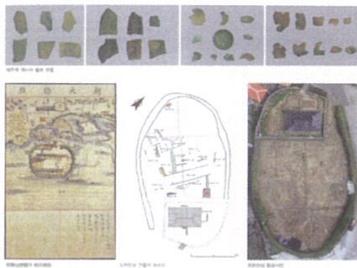
雲龍,雲鳳文 막새 기와 步道

방어유적은 고려시대 제주항파두리항동유적(2003, 2009, 2012~2016)이 대표적이다. 조선시대 3城 9鎮 25烽燧 38燃臺 중 대정현성(2005), 수산진성(2005), 고정의현성(2005), 토산봉수(2005), 등이 조사되었다. 이중 항파두리 항동유적은 2012년부터 5차례의 발굴조사를 외성과 내성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제주고고학연구소 2012~2016). 외성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4차례에 걸쳐 본격적인 발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외성은 판축토성으로 기반조성을 한 후 기저부 석렬을 설치하고 석렬 사이에 영장주조석을 배치하여 조성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내피토루를 성토하면서 성을 쉽게 오르고 내릴 수 있도록 방형의 석축으로 된 등성시설을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였다. 한편 내성지도 2013년 시· 발굴조사를 시작으로 올해에도 발굴조사를 연속하여 진행하고 있다. 조사결과 건물지 20여동을 비롯하여 아궁이, 담장지 등 여러 부속시설들이 조사되었다. 내성지에서는 고려 정자, 중국 동전, 각종 막새류, 고내촌(高內村)명 기와, 고무늬이판, 옥판형 암각화 등 화려하고 다양한 유물들이 출토되었다. 특히 삼벌초의 철갑과 각종 무기류가 함께 출토되어 고려시대 무기사 연구에 중요 자료를 마련하였다.



中國 景德鎮窯 產 青白磁瓦 中國 龍泉窯 產 各種 青磁類기 出土된다

또한 2015년 조천진성 및 연북정에 대한 정비, 복원을 목적으로 제주고고학연구소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천진성 내부 조사결과 건물지 11동과 부속시설인 담장지, 보도지, 배수로, 계단 등 모두 22기의 유구가 조사되었다. 덧붙여 서귀진성[西歸鎮址] 발굴조사는 제주문화유산연구소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3차례에 걸쳐 발굴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조선시대 건물지, 암거시설 및 집수정, 추정성벽지 등 15기가 조사되었다. 특히 옛 문헌기록에서 확인되는 목지(木池) 유구가 확인되었다.



한편 현대고고학의 연구성과로 제주곶자왓내 문화유적 분포 및 실측조사와 함께 구건조사 등이 결합된 민족지 조사를 진행 중이다. 곶자왓 내부에서는 숯생산, 주거·농경·사냥·음용수·신앙유적·목축·일제군사시설·4·3 은신처 등이 확인되었다.



이처럼 耽羅形成期부터 高麗時代に 이르기까지 耽羅[濟州]는 中國 漢, 唐, 宋, 元과의 直間接的인 物質 輸入과 交流가 이루어졌다. 이 當時 耽羅特産物은 耽羅甌, 耽羅方脯, 珂玉(珍珠)이다.



①

濟州東南近海青磁陽刻蓮瓣文'吉'銘大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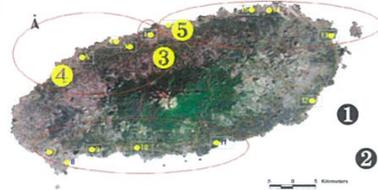


②

濟州東南近海青磁陰刻牡丹蓮瓣文碗



濟州牧官衙址出土 龍泉窯産 青磁陰刻牡丹文大椀



明月里出土四耳瓶
蓮洞出土褐釉四耳瓶



③



57

여기에 제시한 <표 5>은 그 동안 제주도내의 역사유적에 대한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고고학자료를 모아 정리한 역사고고학의 시대편년에 대한 시론적 접근이다. 필자가 제시한 이 편년시안(編年試案)은 앞으로 새로운 자료가 추가될 때마다 수정과 보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표 5> 탐라이후 역사시대 시대구분과 문화 변천(강창화 2011, 2014)

한국	시기구분		정치·사회적 변천	토기문화		고고학적 자료
	제주도	연대	사회변천	제주도 (在地産)	남해안일대 (外地産)	유적·유구·중서
高麗時代	耽羅郡縣時代	A.D.1105 ~1273	- 중앙권력체계의 지방관제	-	순정자, 상감정자 고려백자, 고려도기, 복숭정자	신장리매저유적, 법환사지 2기, 원당사지 2기, 수정사지 2기
	元支配期	A.D.1273 ~1368	- 원(元) 탐라중관부 지배체제	-	상감정자, 고려도기 원(元)자기, 몽골병(四耳部瓶)	항파두리토상(내성, 망루, 부속건물지), 법환사지 3기, 원당사지 3기, 수정사지 3기, 탐라17현준유적, 금성리분묘 1기
	元明交替期(?)	A.D.1369 ~1392	- 만호검목사 파견 - 정치적 전환기	-	말기정자, 고려도기	항파두리의 폐성(廢城), 존자암지 1기, 법환사지 4기, 수정사지 4기, 원당사지 4기, 고내현정터, 김수정군방묘, 미원동분묘, 금성리분묘 2기(14~15세기)
朝鮮時代	濟州三邑(牧)時代	A.D.1392 ~1910	- 원전 중앙 통제체제 - 제주목사삼읍관 할체제 - 제주형 방어체제 구축	용기 (1800년대 생산)	분정사기, 조선백자, 정회백자, 조선도기	3성9진25부수38연대 유적, 존자암지 2기, 법환사지 5기, 수정사지 5기, 원당사지 5기, 제주목관아지, 정인현정터, 정인현객사터, 탐라성주묘, 탐라왕자묘, 광산감씨 입도조묘, 토평동분묘, 귀덕리분묘, 상장리분묘, 금성리 분묘 3기(15~16세기)

58

• 7. 제주도 고고학의 연구 과제

- 제주도 고고학이 학문적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연구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그 과제 중에 앞으로 해결해야 할 몇 가지 문제점과 연구 과제를 제시하면서 맺음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 1) 구석기문화 연구는 석기의 부정형성(不定形性), 중위의 불명확성, 동물뼈 분류(학명)의 이견이 제기된 빌레 뢰트몽골유적에 대해 다시 명확하게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발굴조사된 서귀포시 '생수굴' 동굴(바위그늘) 유적의 경우 내부 퇴적토의 성인연대, 구성물질의 지질학적 분석이 필요하고 차후 문화층의 절대연대, 석기의 정형성, 중위해석의 문제 등을 명확하게 해결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제주도 구석기 연구는 무엇보다도 완전한 구석기의 꺾음새를 보여줄 수 있는 유적의 확인이 절실히 요구되며 아울러 신생대 제4기의 고지질, 동·식물상의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2) 제주 신석기문화연구는 한반도 육지부 지역내의 고산리석토기 단계의 부재(不在) 현상, 제주도내의 전형적인 태산침선문계토기의 부재 현상, 자연과학적인 유분석을 통한 생업활동, 자연생태연구의 미비 등 여러 가지 해석(解析)상의 문제가 제시되고 있다. 특히 제주 고산리유적의 유물조합상은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 전체를 속에서 구석기 최말기에서 신석기 초기로 전환되는 양상속에서 철저하게 비교 분석해 나가야 할 것이다.
- 3) 청동기가 산출되지 않은 제주도 무문토기문화[靑銅器文化]는 그 문화단계가 육지부보다 한참 후행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최근 한국 본토[韓本土]와 축을 같이 하는 맥락에서 정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장차 주변지역과의 문화비교는 물론 마을공간의 배치, 주거지의 제유형, 유물조합상 등을 구체적으로 연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59

- 4) 탐라조기[형성기]·전기에 해당하는 고고학적 자료가 급증하고 있는 점은 기존의 연구 틀에서 벗어나 마을과 마을간의 관계, 중심과 주변간의 관계, 생업체계, 교류관계, 생산체계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연구의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
- 5) 탐라후기[탐라국]의 연구는 문헌자료에 비해 고고학적 자료가 매우 부족하다. 장차 탐라국주의 무덤, 탐라왕궁이 발견되고 구체적인 발굴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이러한 문제점은 쉽게 해결될 것이다.
- 6) 중·근세 고고학적 연구는 그 동안 발굴조사에서 획득한 시찰지, 관아지, 분묘, 방어유적, 생활유적 등의 고고학 자료들을 주제별로 분석하고 서로 연결하여 정리하는 작업이 절실히 필요하다. 특히 고려시대 중렬왕 26년(1300)에 등장하는 대촌현[大村縣]을 비롯한 제주 16 현촌[縣村]의 구조와 생활사, 네트워크망 등을 연구하는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 시기 연구는 마을고고학 차원에서 중세 문헌시를 포함하는 여러 분야의 학문적 접촉 연구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창환(2014), 『제주도 고고학 30년, 발굴조사와 그 성과』, 『濟州考古』 창간호. 제주고고학연구소
- 강창환(2016), 『고고학으로 살펴 본 '탐라(耽羅)' 연구의 어제와 오늘』, 『제주도, 탐라의 형성과 발전』, 제25회 호남고고학회 정기학술대회.
- 강창환(2017), 『제주도 고고학의 발굴조사와 성과』, 『흙 속에서 발견한 역사의 조각들; 2015-2016 호남·제주 고고학의 성과』, 국립광주박물관도록.
- 김경주(2009), 『고고학으로 본 탐라 - 2000년대 조사성과를 중심으로-』, 『섬, 흙, 기억의 고리-지난 10년간의 발굴기록』, 국립제주박물관도록.
- 이정규(1995), 『제주도 고고학 연구』, 학연문화사.
- * 上記 參考文獻 외의 참고문헌은 발표요지 말미에 제시한 문헌 목록을 참조 바란다.

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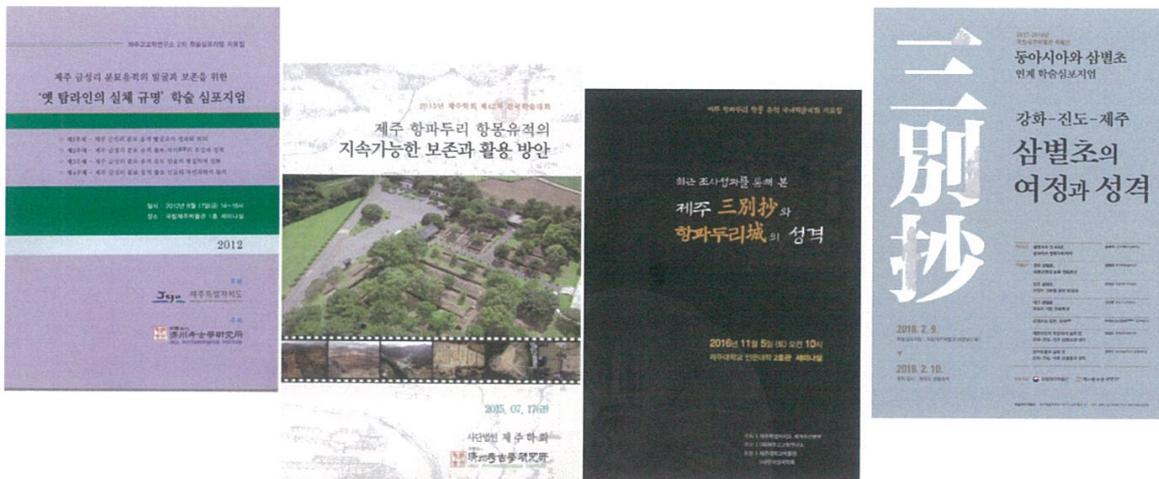
V. 제주고고학의 연구방향과 과제

- 1. 고고학 연구기관의 연구사업 및 추진 현황(제주고고학연구소)
 - 연구소의 주된 사업 : 문헌유산의 보존과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 매장문화재의 발굴조사와 연구보고서의 발간, 문헌유산 관련 학술행사와 국제교류, 문헌유산 전문 인력의 양성과 사립교육, 문헌유산의 전시와 위탁 관리 등
 - 발굴조사 보고서의 지속적 발간 : 발굴조사보고서는 중 30집을 출간
 - 문헌유산의 본과 활용방안에 대한 사업 ; 조천진성의 기본정비계획, 제주시 지식모 실태조사 및 종합정비계획 등을 마련
 - 문헌유산 관련 학술행사: 초청강연(3회)과 학술심포지엄(4회)을 개최, 3권의 학술저서를 지원하거나 또는 직접 발간



61

- 학술심포지엄의 개최 : 2013년 「제주 금성리 분묘유적의 발굴과 보존을 위한 '옛 탐라인의 실제 규명' 학술심포지엄(제주도와 연계)」, 2014년 「제주 향파두리 향문유적의 지속가능한 보존과 활용방안(제주학회와 연계)」, 2016년 「최근 조사성곽을 통해 본 제주 삼별초와 향파두리 성의 성격(세계유산본부와 연계)」, 2018년 「강화-진도-제주 삼별초의 여정과 성격(국립제주박물관 동아시아 삼별초 특별전과 연계)」



62

- 학술진원 지원 사업 : '제주학연구자모임'에 지원하여 출간한 『제주학과 만남』, 『제주학 산책』이 있으며, 연구소 자체 발간 저서인 『용포천 주변 마을의 자연과 생활문화』가 있음



- 문화유산 전문인력의 양성과 사회교육: 문화재청과 한국매장문화재협회의 지원으로 우리동네 유적 참여프로그램 등 2건(2015년 '사적 396호 제주 향파두리 향몽유적' 해설사 및 체험프로그램 진행자 양성교육, 2016년 '우리동네 유적'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함).



- ‘濟州考古學’ ‘학술지의 지속적 발간 : 『제주고고(濟州考古)』 창간호(2014), 2호(2015), 3호(2016), 4호(2017), 5호(2018 편집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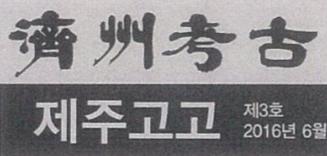


논문

- 11 제주도 고고학 30년, 발굴조사와 그 성과 / 강창화
- 53 後期舊石器時代 point형 石器 검토를 통한 석족 출현과의 연관성 고찰 / 박근태
- 73 제주도 패총 출토 어패류에 관한 소고 / 양나래
- 93 제주도 선사시대 우물 연구 / 양용진
- 109 제주도 고려말 조선초 분묘 연구 / 김봉찬
- 151 翰林里 마을문서 譯解 / 고창석

목차(目次)

- 5 제주 지질학과 고고학의 만남: 상모리 일대 화산쇄설음 회암층에 대한 고고학적 해석 / 윤중현 · 강창화
- 19 제주도 청동기시대 전기 방형계주거지의 계통에 대한 검토 - 삼양동 일대 유적을 중심으로 - / 오원홍
- 35 제주도 지석묘(支石墓) 연구사 검토 / 김진환
- 47 제주 향파두리성의 고고학적 연구(1) - 제주 향파두리성의 발굴조사와 그 성과를 중심으로 - / 김용덕
- 65 제주 금성리 분묘유적 출토 자기(磁器)의 특징과 성격 / 현문필
- 81 濟州邑城에 對한 考古學的 研究(1) / 강창화
- 121 제주고고학연구소 휘보(彙報)



목차(目次)

- 5 제주시 지석묘 분포지역의 지리적 환경 고찰 / 정광중
- 21 제주시 지석묘의 분포 실태와 특성 / 김진환
- 37 제주도 광령천 일대 고인돌과 비위구원(性穴) 고찰 / 김중찬
- 65 청동기시대 호남지역과 제주지역 취락의 계통 / 김규정
- 81 고인돌(支石墓) 정비와 보존 사례 검토를 통한 활용방안 / 김승근 · 김진환
- 101 제주시 고인돌(支石墓)의 보존과 활용방안 / 김범훈
- 117 제주고고학연구소 휘보(彙報)



논문(論文)

- 5 제주도 청동기시대 전기의 성립과 계통에 대한 검토 / 오원홍
- 31 제주 금성리 분묘유적 출토인공의 분석 및 형질적 검토 / 김재현 · 김주희
- 83 濟州邑城에 對한 考古學的 研究(Ⅱ) / 강창화
- 129 천문도와 지도로 보는 제주의 별문화 / 오상학
- 145 주거지 축조를 통한 검토와 활용 / 김진환 · 이원중
- 157 2017 SAA 참가기 / 박근태
- 167 제주고고학연구소 휘보(彙報)



65

○ 2. 최근 제주 지역의 고고학적 연구성과

○ 시적 412호 고산리 신석기유적의 발굴성과: 우리나라 최고의 신석기유적이라는 점, 층위는 적어도 2기[고산리식토기시(조기)-용기문토기시(조기)]로 이어지는 층위가 존재한다는 점, 지상식 주거지, 적석식 아외노지, 소토가 함유된 수혈유구 등은 인정하되 다수의 송국리식 타원형 주거지는 재고의 여지 남김.

○ 2016년 12월, 4개국이 참가하는 고산리유적 국제심포지엄이 개최되었고 2017년 2월 제주문화유산연구원과 제주고고학연구소가 공동으로 고산리유적 단행본 출판에 따른 공동 원고 집행을 진행 중임. 더불어 2018년 11월 한국신석기학회 주관으로 한국신석기의 서막, 고산리유적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준비 중임.



濟州考古學研究所
Jeju Archaeological Institute

제주고고학연구소 학술조사 유적 워크숍

제주 고산리 신석기유적의 지속 가능한 조사·연구 방향 모색

2016

財團法人
濟州考古學研究所
Jeju Archaeological Institute

66

66

2. 최근 제주 지역의 고고학적 연구 성과

○ 사적 522호 용담동 2696-2번지 유적의 발굴성과 : 사적 416호 삼양동유적만 제주의 대표적인 고대마을유적, 탐라국의 중심마을[거점취락] 확인



67

2. 최근 제주 지역의 고고학적 연구성과

○ 제주 금성리 분묘유적의 발굴성과 : 고려말 조선초의 분묘내 인골 발견은 매우 드문 예임. 고려말 조선초의 매장법과 형질인류학 및 DNA분석 등을 통해 탐라인의 원형 복원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임



68

3. 고려 삼별초유적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초보 작업 진행

○ 강화도에서는 2015년 문화재청의 잠정목록 등재를 목표로 해양관 방유지에 초점을 맞추어 삼별초유적의 세계문화유산을 추진하고 있음. 지금까지 삼별초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삼별초의 역순로인 제주 향파두성-진도 용장성-강화도 중성으로 이어지는 '고려 해양 삼별초유적'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국가차원의 의지가 필요함.

○

Quarterly Archaeology Magazine 계간 한국의고고학

주간 韓國의考古學 2016 Vol.31 Uneath

편집자 | 정복호 | 서울(02)3445-1500 | 유적조사 | 2006년 4월 7일 | 발행일 | 2016년 2월 15일 | 발행처 | 주위문화재단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435(사우동 1375-51) | Tel. (02)3481-5995 | Fax. (02)3482-0036 | www.gogohak.co.kr | e-mail | pub@kug.or.kr

특집 | 고고학으로 걷는 '삼별초의 길'

- 삼별초의 길, 강화에서 향파두리까지
- 고려 대동 40년 향전의 보루, 강화중성
- 해상왕국 고려를 꿈꾸다, 용장성
- 삼별초 최후의 거점, 향파두성
- 삼별초와 일본-류큐

해외 고고학 현장 탐방
피루아 주 고자에 사는 다니 록의 생활과 문화

Uneath-Focus

- 동일산리부터 조선시대까지 이어진 상주 법주사지
- 경북지역 구석기 기술자료가 될 예전 삼강리
- 여차산성 남문지 및 배수구 발굴조사
- 공주 공산성에서 31종의 백제 시대 건물지 확인
- 연천 남계리에서 구석기 시대 주택도끼 출토

특별 기고 - 가야 유적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하여
- 가야고분군, 세계문화유산 등재의 의미

Uneath-Cafe
정리표본 박물관 무엇인가?
한국고고학회 회원
이남규 한신대학교 교수

불교미술 신학
어머니의 국학왕상을
기원하며 사라수댕



4.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고고학 교육프로그램의 활성화 방안

○ 고고학자가 발굴조사 중이거나 발굴조사된 중요유적을 일반인들에게 생생하게 공개하고 문화재 발굴현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문화재의 올바른 이해와 더불어 양질의 문화재 교양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

○ 제주 향파두리 향몽유적의 발굴 현장 체험과 약 4km의 토성 위와 돌레길을 탐사, 교육과 체험 관련 책자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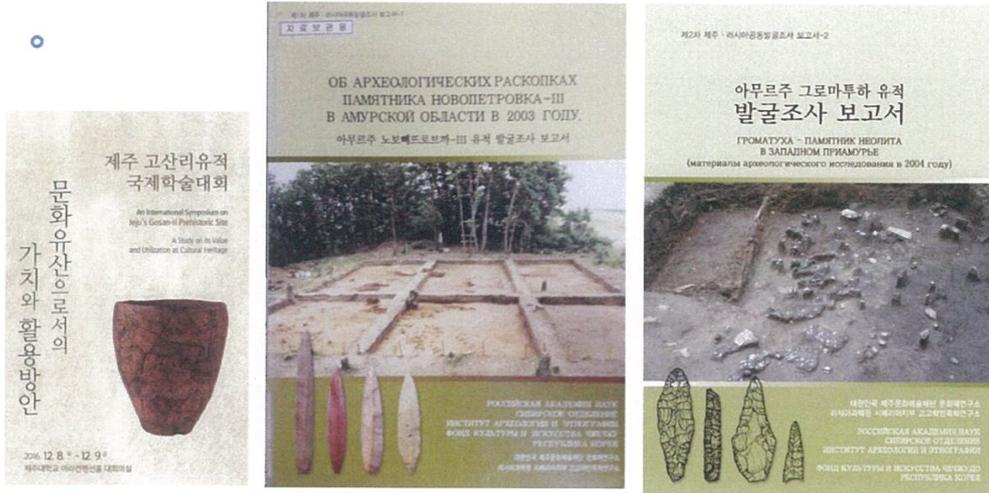
○ 초등학생과 중학교 학생들을 위한 고고학 교육 프로그램개발, 연구원이 진행하는 제주 탐라유적 탐사와 발굴이야기 제공(남원중학교 6~10월 8회 진행)

○



5. 제주도 고고학의 대외교류 사업의 진행

○ 지난 2003~2004년 아무르 국제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러시아과학원 시베리아 지부 고고학민족학연구소와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문화재연구소가 ‘러시아-한국 공동 고고학 발굴조사[노보페트로브카-III유적(2003), 그로마투하유적(2004)]’ 를 진행한 바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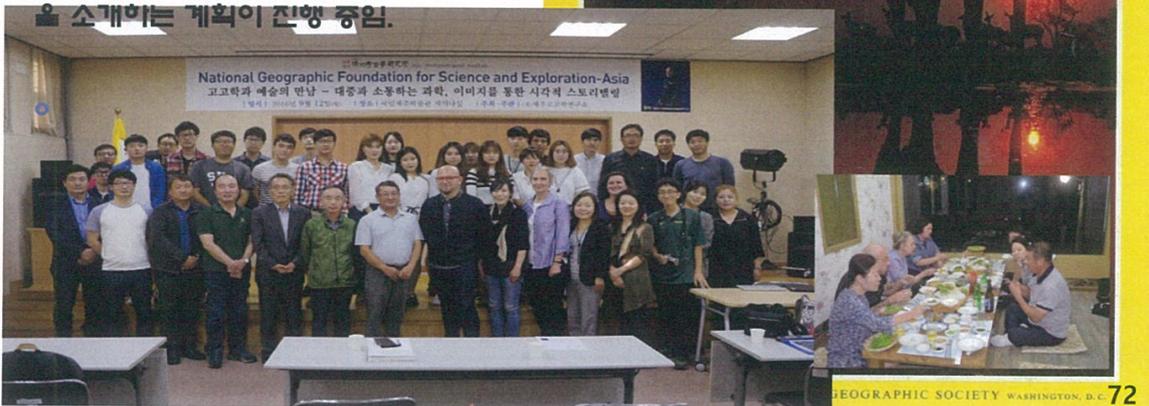


71 71

5. 제주도 고고학의 대외교류 사업의 진행

○ 한편 2016년 현재 제주고고학연구소는 내셔널지오그래픽 과학탐험단 'National Geographic Foundation for Science and Exploration-Asia'으로 부터 지원을 받아 'The Origin of Neolithic Culture in Jeju Islands, Korea' 학술훈수를 진행하고 있음

○ 'The Origin of Neolithic Culture in Jeju Islands, Korea' 의 연구 프로젝트를 National Geographic Foundation for Science and Exploration-Asia와 함께 3년간 더 진행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2017년 『National Geographic』에 특집 기사를 소개하는 계획이 진행 중임.



6. 신창리 해저유적의 '동북아시아 교역로제주도의 위상에 대한 실증적 연구'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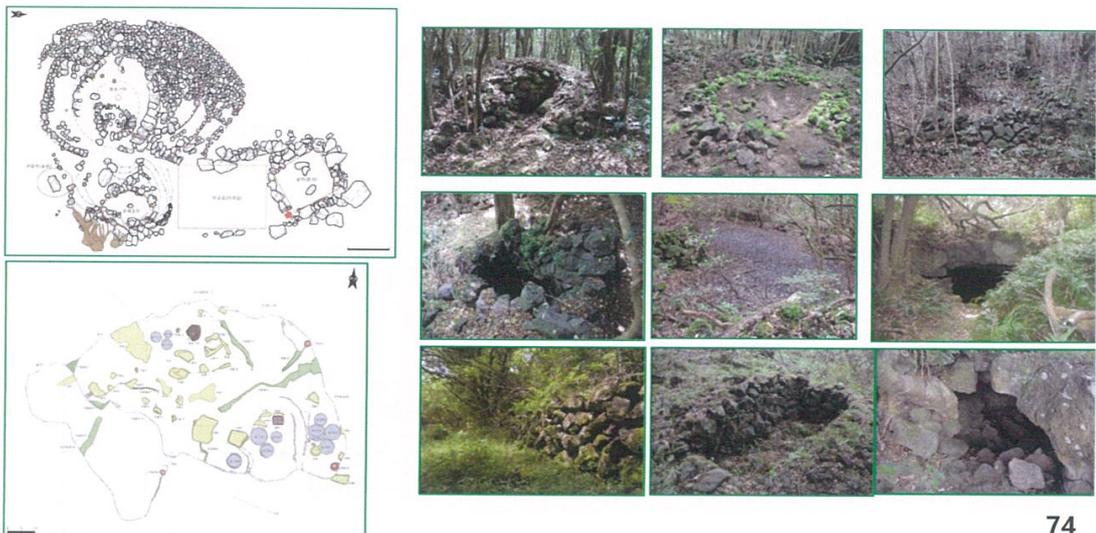
○ (재)제주고고학연구소는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의 2016 제주학 기초연구 공모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2016년 5월부터 6개월 간 '동아시아 해상 무역로에서 제주도의 위상에 대한 실증적 연구; 제주 신창리 해저 유적 출수 중국 도자기와 동시기 일본의 중국 도자기 수용 양상의 비교를 중심으로' 주제로 학술연구를 진행함



아미미오시마(奄美大島) 구라키지키(倉木崎)

7. 제주도 고고학 연구 영역의 확대 ; 민족지고고학과 제주 곶자왓 고고학의 접목

- 제주 곶자왓내 문화유적의 분포실태와 특징, 발견된 중요 문화유적 실측조사, 곶자왓 생활사 구전체 록 등이 결합된 민족지조사를 진행 중임.
- 곶자왓조사는 인류학, 역사학, 인문지리학, 지질학, 생태학 등이 결합된 융복합적인 연구를 진행해야 하며 그 연구의 중심에는 고고학의 몫이 큼.



8. 이외에 앞으로 제주고고학이 추진해야 연구 방향



○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제주문화예술단 문화재연구소가 진행하였지만 일정 기간 단절되었던 '선사인의 생활 체험 프로그램'의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것임. 물론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제주문화유산연구원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기도 했음. 이 '선사인의 생활 체험 프로그램'은 제주도내에서 발굴조사된 선사시대 마을 복원하여 현재를 사는 일반인들에게 직접 '탐라 주민의 삶과 문화'를 연결시켜 주는 체험프로그램으로 반드시 자리매김 해야 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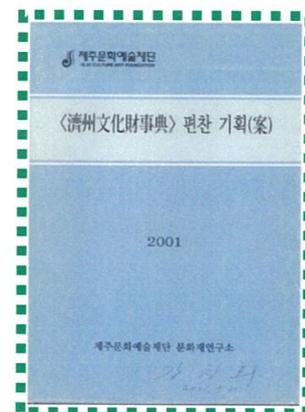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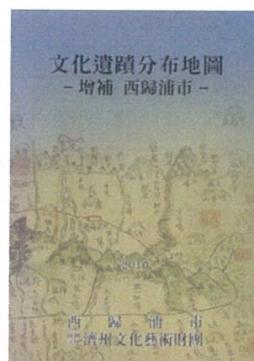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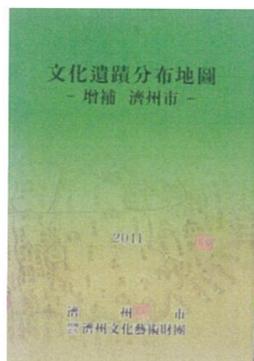


달가들 운반 실험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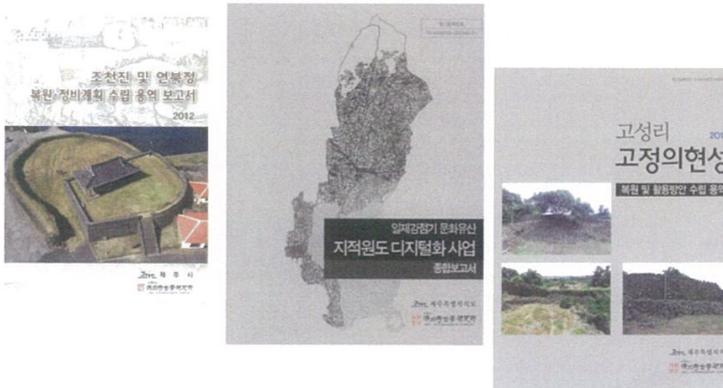
8. 이외에 앞으로 제주고고학이 추진해야 연구 방향

○ '제주문화재사전'의 편찬사업의 진행. 지정된 문화재 뿐만 아니라 비 지정된 문화재를 모두 종합한 문화재사전을 말 함. 도내의 문화재는 모두 2,000여건에 정도 임. 이 사전은 누구나 알기 쉽게 정리한 사전이 필요한 시점임.



8. 이외에 앞으로 제주고고학이 추진해야 연구 방향

- 제주고고역사연구모임[濟州考古歷史研究會]의 결성과 더불어 집중 토론회의 정착임. 이러한 집중 토론회를 통해 차후 고고학자 뿐만 아니라 역사학자, 문헌인류학자 등 서로 연계된 학문적 연구 결과들이 도출되어야 할 것임.
- 이 연구모임에서 도출된 연구 자료들은 차후 『濟州文化財研究』(2003-2004), 『濟州考古』(2014~現在)와 같은 연구지(研究誌)로 모아져 제주고고학 자료로서 남겨져야 할 것임.
- ‘제주문화재’ 보존과 활용, 기본계획 중합보고서의 작성.



濟州考古學 主要 論著 目錄

- 김철준, 1959, 「제주도지석묘조사보고」, 『서울대 논문집 9』.
- 송석범, 1962, 「제주도의 고인돌 소고」, 『제주도』 통권 제13호, 제주도.
- 최동룡, 1967, 「곽지리 지석묘 조사보고」, 『문리대학보』, 서울대학교.
- 鄭永和, 1983, 「濟州道研究의 現況과 展望-考古學의 側面」, 耽羅文化3, 耽羅文化研究所.
- 임호재, 1986, 「제주도 선사문화 연구의 현황과 문제점」, 『제주도연구』 3권, 제주학회.
- 김수희, 1986, 「제주도 지석묘 흐름에 대한 일고찰」, 『제주사학』,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사학과.
- 김병모, 1988, 「제주문화의 고고학적 성격 고찰」, 『제주도연구』 5권, 제주학회.
- 양중렬, 1993, 「제주도 지석묘에 대한 일고찰」,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호재, 1995, 「한·일 문화교류사의 새로운 발굴자료」, 『제주도 신석기문화의 원류』, 한국신석기연구회 발표요지.
- 최동룡, 1999, 「제주도 철기시대에 있어서 계급사회의 발생」, 제주도시정립사업추진협의회 발표요지.
- 이정규, 1984, 「光令里出土 石器和 金海式土器」, 『濟州道研究』 1, 제주도연구회.
- 이정규, 1985, 「濟州道 支石墓 研究(1)-北濟州郡 涯月邑 光令里 支石墓群-」, 『耽羅文化』 4,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 이정규, 1985, 「光令里와 郭支里 遺蹟, 遺物의 比較-濟州道 先史文化에 對한 考古學의 研究-」, 『論文集(인문학편)』 20, 제주대학교.
- 이정규, 1985, 「濟州道地方의 初期鐵器 性格과 無文土器文化의 展開」, 『한국고고학보』 17, 한국고고연구회.
- 이정규, 1987, 「濟州道 土器에 대한 一考察」, 『耽羅文化』 6,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 이정규, 1987, 「제주도 상모리 無文土器에 對한 考察」, 『三佛金元龍教授 停年紀念論叢』, 三佛金元龍教授停年紀念論叢刊行委員會.

- 이정규, 1989, 「제주도 高山里출토 隆起土器」, 『耽羅文化』 9,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 이정규, 1991, 「濟州道 考古學과 土器 研究」, 『濟州道史研究 創刊號』, 濟州道史 研究會.
- 이정규, 1992, 「제주도사 연구에서의 고고학의 역할과 방향」, 『제주도연구』 9, 제주연구원.
- 이정규, 1993, 「상고시대 제주도 문헌의 연구」, 『제9회 한국상고사학회 학술발표회 발표논문』 9, 한국상고사학회.
- 이정규, 1994, 「제주도 고대토기문헌의 연구」, 『호남고고학보』 1, 호남고고학회.
- 이정규, 1994, 「삼성산헌에 대한 고고학적 접근」, 『탐라문화』 14,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 이정규, 1995, 『제주도 고고학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정규, 1995, 『濟州道考古學研究』 學研文化史.
- 康昌和, 1989, 濟州地方의 先史文化와 甬窟. 비위그늘住居址, 《第四期學會誌》 1.
- 康昌和, 1993, 濟州牧官衙址, 《古文化》 제42. 43합집.
- 康昌和, 1994, 濟州島 出土 漢代 貨幣遺物의 한 例, 《韓國上古史學報》 17.
- 康昌和, 1995, 濟州高內里遺蹟發掘報告, 《韓國考古學의 半世紀》, 第19會全國考古學大會發表要旨.
- 康昌和, 1995, 濟州郭支貝塚 7地區의 土器와 層位, 《濟州島史研究》 5.
- 康昌和, 1995, 統一新羅土器의 變遷에 對한 研究, 嶺南大學校大學院碩士學位請求論文
- 康昌和, 1996, 濟州郭支貝塚 7地區의 層位와 土器에 대한 一考察, 《古文化》 47. 48.
- 康昌和, 1996, 「제주도 고인돌」, 『제4기 박물관대학시민강좌』, 제주도. 제주대학교박물관.
- 康昌和, 1997, 濟州三陽洞遺蹟發掘調查報告, 《湖南考古學의 諸問題》, 21회 全國考古學大會發表要旨. 한국고고학회.
- 康昌和, 1997, 濟州高山里遺蹟發掘報告, 《韓國四期學(KOQUA)》, 第22次國學術大會發表要旨, 제4기지질학회.
- 康昌和, 1998, 「제주 미술의 고고학적 연구」, 『서귀포문화』, 제2호.
- 康昌和, 1998, 濟州地方의 新石器土器에 대한 小考, 《濟州學會》, 第14次會全學學術會要旨.
- 康昌和, 1999, 濟州島의 最近 考古學的 發掘成果- 濟州高山里遺蹟. 三陽洞遺蹟을 中心으로, 東京考古學研究 99-2期 發表要旨.

- 康昌和, 2000, 統一新羅土器 變遷에 對한 研究, 《인류학연구》 9.
- 康昌和, 2000, 濟州 法華寺址의 考古學的 研究, 《濟州島史研究》 9.
- 康昌和, 2000, 濟州市 龍潭洞遺蹟 發掘調查概報, 《湖南考古學大會發表要旨》 3.
- 康昌和, 2001, 濟州島 初期 新石器文化와 對馬島. 西北九州, 《耽羅文化》 21.
- 康昌和, 2002, 濟州地方 初期新石器문화의 形成과 展開, 《애양고류의 고고학》, 한국고고학회.
- 康昌和, 2003, 耽羅以前的 社會와 耽羅國의 形成, 《강좌 한국고대사》 10,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 康昌和, 2004, 한라산과 그 주변지역의 역사와 문화, 《제주교대논문집》. 제주교육대학교.
- 康昌和, 2004, 上古時代 濟州島와 日本 西北九州의 考古學的 比較 試論, 《조동고고학연구》 9, 제주교육대학교 조동고고학연구원.
- 康昌和, 2004, 제주도 신석기 연구의 현황과 과제, 《제주도 신석기문화의 형성과 전개》. 한국신석기학회.
- 康昌和, 2005, 제주도 신석기문화의 형성과 전개, 《제주도의 고고학》. 호남고고학회.
- 康昌和, 2005, 고대 탐라의 실체와 물자의 교류, 《동아시아 역사상과 우리문화의 형성》. 한국학중앙연구원.
- 康昌和, 2007, 『濟州 高山里 新石器文化 研究』,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康昌和, 2007, 「濟州 高山里 出土 土器의 形式과 變化」, 『天馬考古學論叢』, 석심정영향교수정년퇴임기념논총.
- 康昌和, 2009, 「濟州 高山里 出土 石鏃의 形式과 變化」, 『濟州島研究』 제35집, 濟州學會.
- 康昌和, 2010, 「제주 광지리유적의 발굴과 그 성과」, 『濟州學』 제6호, 제주학연구소.
- 康昌和, 2013, 「제주목관아의 발굴과 그 성과」, 『濟州學』 제7호, 제주학연구소.(2014. 02).
- 康昌和, 2014, 「제주도 고고학 30년, 발굴조사와 그 성과」, 『濟州考古』 창간호, 제주고고학연구소(2014. 6).
- 康昌和, 2014, 「수정사지 발굴과 그 성과」, 『濟州學』 제9호, 제주학연구소(2014. 12).
- 康昌和, 2015, 「濟州邑城에 對한 考古學的 研究(I)」, 『濟州考古』 제2호, 제주고고학연구소.
- 康昌和, 2017, 「濟州邑城에 對한 考古學的 研究(II)」, 『濟州考古』 제4호, 제주고고학연구소.
- 康昌和, 2009, 「濟州 高山里 初期新石器文化의 性格과 位置 設定」, 『21세기의 한국고고학』 II, 주류성출판사.(ISBN 978-89-6246-023-0, ISBN 978-89-6246-002-5 세트).
- 康昌和, 2010, 「고대탐라의 대외 물자교류」, 『제주학과 만남』, 제주학연구자모임. 21출판사.(ISBN 978-89-93833-03-4).

- 강창환, 2010, 「탐라국의 형성고 발전」, 『耽羅史 I』, 제주사정립사업추진협의회·제주특별자치도. ISBN 978-89-6010-557-7, 2017. 11. 20).
- 강창환, 2011, 『용포천 주변 마을의 자연과 생활문화』, 도서출판 신이문화사.(ISBN 978-89-97074-07-5 93060).
- 강창환, 2011, 「제주도지역 신석기토기문화」, 『한국 신석기문화 개론』, 서경문화사.(ISBN 78-89-6062-083-4).
- 강창환, 2012, 「제주 서북부 각지폐중」, 『제주학산책』, 제주학연구자모임. (ISBN 978-89-97074-4 93000).
- 강창환, 2014, 『곶자왓의 생태와 문화 - Ecology and Culture on the Gotjwal[Lave Forests』, 국립산림과학원.(ISBN 978-89-8176-393-0, 2014. 02).
- 강창환, 2014, 『선홀곶자왓의 역사문화자원 - Historical Culture Resources in Seonheul Gotjwal』, 국립산림과학원.(ISBN 978-89-8176-233-9, 2014. 11).
- 윤중현 · 강창환, 2015, 「제주 지질학과 고고학의 만남: 상모리일대 환산쇄설층위암층에 대한 고고학적 해석」, 『濟州考古』 제2호, 제주고고학연구소(2015. 6).
- 부혜진 · 강창환 · 정광중, 2016, 「제주도 중산간 곶자왓 지대의 마을공동목장 운영과 방목활동에 통한 생활상 연구」,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22권 제2호(2016. 05).
- 정광중 · 강창환 · 강성기 · 부혜진, 2016, 「반도부 솟기마 실태와 솟 생산 및 활용에 대한 예비 연구」, 『濟州島研究』 제46집(2016. 8).
- 강창환 · 김중찬, 2008, 「제주도 신석기문화 연구의 성과와 전망」, 『韓國新石器研究』 제16호, 한국신석기연구회.
- 강창환 · 정광중, 2014, 「제주 선홀곶자왓내 역사문화유적의 분포실태와 특징」, 『한국사건지리학회지』 24(1), 153-173,
- 강창환 외, 2016, 『東아시아 海上 交易路에서 濟州島의 位相에 대한 實證의 研究 - 濟州 新昌里 海底遺蹟中國 陶瓷器와 同時期 日本의 中國陶瓷器 收用 樣相의 比較를 中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제주발전연구원제주학센터.(ISBN 978-89-6010-485-3, 2016. 11).
- 강창환 · 김용덕, 2016, 「삼별초 최후의 거점, 항파두성」, 『계간 한국의 고고학』, Vol.33, 주류성출판사, pp. 32-41.
- 강창환, 2017, 「제주도 고고학의 발굴조사와 성과」, 『흙 속에서 발견한 역사의 조각들-2015~2016 호남·제주고고학의 성과』, 2017 국립광주박물관 특별전도록. pp.206-220.

81

- 강창환, 2017, 「제주의 고고학」, 『제주학개론』, 제주특별자치도·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 강창환 · 김용덕 · 윤중현 · 김진환, 2017, 「삼별초 최후의 거점, 제주 항파두성」, 『삼별초와 동아시아 Sambyeolcho and East Asia』, 2017 국립제주박물관 특별전도록. pp.278-295.
- 김정숙 · 우경식 · 홍완 · 강창환, 2010, 「상모리폐중에서 산출되는 이매패류 패각을 이용한 고환경 복원 예비 연구」, 『第四紀學會誌』, 第24卷, 韓國第四紀學會.
- 안용산 · 손영관 · 윤우석 · 류준길 · 정중옥 · 강창환, 2015, 「사람 발자국 퇴적층 하부의 테프라 유리 중성 연구: 테프라 기원지와 사람발자국의 형성 시기- Geochemical fingerprinting of basaltic glass in tephra deposits underlying the human footprints-bearing strata, Korea: provenance of tephra and age of the human footprints」, 『대한지질학회지(THE GEOLOGICAL SOCIETY OF KOREA)』, V.51,no2, p.105-126.
- 12) Y.K. Sohn, W.S.Yoon, U.S.Ahn, G.B.Kim,J.-H.Lee,C.K.Ryu,Y.M.Jeon,C.H.Kang, 2015, 「Stratigraphy and age of the human footprints-bearing strata in Jeju Island, Korea: Controversies and new findings」, 『Journal of Archaeological Science: Report4(2015)264-275
- 고재원, 1996, 고산리 타제석기 형태적 분석, 한양대 석사학위논문
- 고재원, 2001, 제주도구석기문화의 검토, 제주도사연구 10집,
- 고재원, 2001, 선사시대 유적과 유물, 가파도 학술조사보고서,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 고재원, 2004, 김녕궤내기동굴유적의 성격에 대한 시론, 제주문화재연구 제2호, 제주문화예술재단
- 고재원, 2009, 제주도지역의 신석기문화, 한반도 신석기지역문화론, 동삼동패중전시관 학술총서Ⅳ
- 고재원, 2009, 제주지역의 청동기시대, 섬, 흙, 기억의 고리, 국립제주박물관
- 고재원 2013, 유물로 본 제주도 고산리문화, 한·일 조기신석기문화 비교연구,한국신석기학회·구주승문연구회
- 고재원, 2014, 고산리식 토기의 분류와 편년, 한국신석기시대 토기와 편년, 진인진
- 고재원, 2015, 제주도의 제4기 퇴적층과 구석기. 제주도의 구석기 연구현황과 성과, 구석기학회학술대회 자료집
- 조현중, 2005, 「先史時代 濟州의 對外交流」, 『제주도의 고고학』, 호남고고학회.
- 이영덕, 2004, 「남해안과 제주도 신석기토기의 전개양상」, 『제주도 신석기문화의 형성과 전개』, 한국 신석기연구회.

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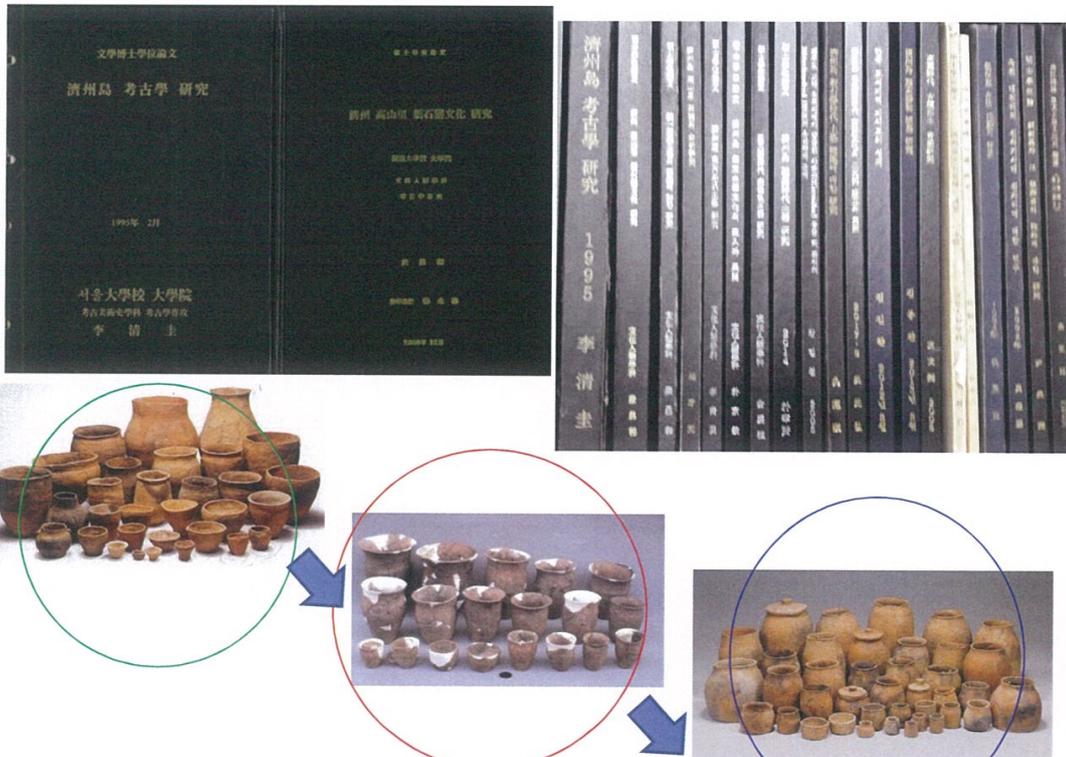
- 김경주, 2001, 「濟州島 赤褐色硬質土器 研究」, 『韓國上古史學報』第35號, 韓國上古史學會.
- 金慶柱, 2005, 「耽羅成立期 聚落의 形成과 變遷」, 『湖南考古學報』22輯, 湖南考古學會.
- 金慶柱, 2007, 「三陽洞式土器의 始原에 對한 考察」, 『석식 정영환교수 정년퇴임기념 전마고고학논증』, 전마고고학회.
- 김경주, 2009, 「고고학으로 본 탐라-2000년대 발굴조사 성과를 중심으로」, 『섬, 흙, 기억의 고리』, 국립제주박물관.
- 金慶柱, 2010, 「제주지역 송국리문화의 수용과 전개」, 『韓國青銅器學報』6號, 韓國青銅器學會.
- 김경주, 2012, 「龍潭洞 鐵器副葬墓와 그 被葬者의 性格」, 『人類學 考古學 論叢』, 영남대학교문화인류학과 개설 40주년 기념논증.
- 김경주, 2013, 「고고유물(考古遺物)을 통해 본 탐라(耽羅)의 대외교역-한식(漢式) 유물을 중심으로」, 『탐라시의 재해석』, 제주발전연구원.
- 金慶柱, 2016, 「考古資料로 살펴 본 元과 耽羅」, 『耽羅文化』 제52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 金慶柱, 2018, 「耽羅 前期의 聚落構造와 社會相」, 『耽羅文化』 제57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 김경주, 2018, 「문헌과 고고자료로 본 탐라의 대외교류」, 『湖南考古學報』第58輯, 湖南考古學會.
- 김경주, 2018, 「제주지역 점토대토기문화의 정착과 변천과정」, 『韓國青銅器學』, 第22號, 韓國青銅器學會.
- 김정선, 1994, 「제주목관아지 출토 도자기 소고-분청시기의 무늬와 백자 명문을 중심으로-」, 『제주도사연구』3, 제주도사연구원, 41~65쪽.
- 김정선, 2008, 「제주도 유적 출토 고려시대 도자기」, 『박물관도록』, 제주대학교박물관, 84~92쪽.
- 김정선, 2008, 「翁仲石 : 돌하르방에 대한 고찰」, 『탐라문화』 제33호, 2008,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244쪽.
- 김정선, 2009, 「돌하르방의 조형적 특징 검토」, 『공립박물관학에조사연구보고서』 창간호, 82~96쪽.
- 김정선, 2010, 「제주도 용기가마의 구조와 그 연원」, 『탐라문화』 제37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353~393쪽.
- 김정선, 2010, 「문헌을 통해 본 제주도 용기제작 개시시기와 제작기술 유입경로」, 『공립박물관학에조사연구보고서』 제2호, 9~26쪽.

83

- 오연숙, 1999, 『濟州島 新石器時代 土器의 變遷에 對한 研究』,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연숙, 2000, 「제주도 신석기시대 토기의 형식과 시기구분」 『호남고고학연구』 12, 호남고고학회
- 오연숙, 2004, 「제주도 신석기시대 유적과 유물」, 『제주도 신석기문화의 형성과 전개』, 한국신석기연구회.
- 이상미, 2001, 『濟州島 高內里式土器 研究』,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상미, 2001, 『濟州島 高內里式土器의 分析的 研究』, 『제주도사연구』 제10집, 제주도사연구원.
- 김중찬, 2003, 「제주도 동굴유적의 성격」, 목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중찬, 2012, 「제주도 광령리 암각화에 대한 일고찰」, 『濟州島研究』 37, 濟州學會.
- 박근태, 2006, 「고산리유적 석죽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근태, 2009, 「신석기시대 초창기 단계의 석기 검토-제주도를 중심으로」, 『考古廣場』 제5호, 부산고고학연구회
- 박근태, 2010, 「제주도 신석기시대 초창기 토기 검토」, 『부산대학교 고고학과 기념논문집』, 부산대학교 고고학과
- 박근태, 2011, 「제주도 신석기시대 석기 검토」, 『한국신석기학보』 제21호, 한국신석기학회
- 박근태, 2011, 「제주도 영선동석토기 연구」, 『濟州道研究』 제35집, 濟州學2012, 「신석기시대 초창기 단계의 문화양상」, 『한국 신석기문화의 양상과 전개』, 중앙문화재단연구원 학술총서6.
- 박근태, 2014, 「신석기시대 석기의 용어와 분류」 『한국 신석기시대 석기의 분류와 제작방법』, 제4회 한국신석기학회 집중토론회
- 박근태, 2016, 「고산리유적의 석기조성과 생업」,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와 활용방안』, 고산리유적 국제학술회 발표요지
- 나정옥, 2004, 「제주지역 고인돌과 보존현황」, 『세계거석문화와 고인돌』, 동북아지석묘연구소

84

- 현문필, 2005, 『고려시대 고분출토 청자 연구』, 동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현문필, 2010, 「출토유물을 통한 원당시대의 조서시기와 성격고찰」, 『濟州島研究』 33, 濟州學會.
- 현문필, 2011, 「조지암의 창건(創建)에 대한 일고찰」, 『濟州島研究』 35, 濟州學會.
- 현문필, 2015, 「제주 금성리 분묘유적 출토 자기의 특징과 성격」, 『濟州考古』 제2호, 제주고고학연구소.
- 김진환, 2016, 「제주도 지식묘의 재검토」, 『제주도 청동기~조기 철기문화의 전개양상』 국립제주박물관·한국청동기학회 공동학술대회, 국립제주박물관·한국청동기학회.
- 김진환, 2016, 「제주항파두리성 내성 조사성과」, 『최근 조사성과를 통해 본 제주 三別抄와 항파두리城의 성격』,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재)제주고고학연구소.
- 김진환, 2017, 「탐라형성기 묘제의 제양상」, 『제주도, 탐라의 형성과 발전』, 호남고고학회.
- 김진환, 2018, 「제주삼별초, 항파두성 내성의 구조와 특징」, 『강화-진도-제주 삼별초의 여정과 성격』, 국립제주박물관·(재)제주고고학연구소.
- 박경민, 2012, 『濟州島 無文土器文化의 流入과 展開』,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경민, 2017, 「제주 북서부 청동기시대 물질문화의 시간적 흐름과 성격-주거지와 토기를 중심으로」, 『호남고고학보』 56, 호남고고학회.
- 박경민, 2018, 「탐라의 형성과 고고자료의 상관관계 연구」, 『호남고고학보』 58, 호남고고학회.
- 오원홍, 2017, 『濟州島 青銅器時代 前期文化의 二元的 成立과 展開』,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원홍, 2018, 「탐라 이전 송국리형 주거취락의 변화 양상: 삼양동·용담동 일대 유적을 중심으로」, 『호남고고학보』 58, 호남고고학회.
- 박재연, 2014, 『濟州島 耽羅時代土器 研究』,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민철, 2005, 「제주도 고대유적지에서 발굴된 시슴과 동물뼈 합성의 Mitochondrial DNA의 유전학적 분석」,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봉찬, 2013, 『濟州島 麗末鮮初 墳墓 研究』, 목포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봉찬, 2014, 「제주도 고려말 조선초 분묘 연구」, 『濟州考古』 제1호, 제주고고학연구소.
- 김재연, 2017, 「제주 금성리 분묘유적 출토 인골의 형질학적 검토」, 『濟州考古』 제4호, 제주고고학연구소.
- 강소영 외, 2012, 「제주 금성리 분묘유적 출토 인골의 자연과학적 분석」, 『제주 금성리 분묘유적의 발굴과 보존을 위한 '옛 탐라의인 실제규명' 학술심포지엄』, 제주고고학연구소.



지금까지 '濟州島 考古學의 研究成果와 課題' 를 경청해 준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